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윌리엄 틴들의 성서번역과 개혁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최상식

윌리엄 틴들의 성서번역과 개혁

지도교수 박 홍 식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최상식

최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7월

위 원 장 _____ 박 지 향

부 위 원 장 _____ 박 홍 식

위 원 _____ 최 갑 수


(인)


(인)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16세기 초, 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하는 잉글랜드 당국의 억압 속에서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 1494-1536)이 성서번역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개혁의 독자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도이다. 틴들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그를 초기 주류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집단 또는 같은 노선 상에 있었던 인물로 설명한다. 이 때문에 그의 독자적인 견해 및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틴들은 번역성서를 출판한 1526년부터 1536년 화형을 당하기 전까지 성서번역 작업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것을 막는 헨리 8세와 고위 성직자들에 대해 일관된 비판을 개진했다. 그 과정에서 틴들은 주류개혁가들과 다른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헨리 8세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유와 그가 강조했던 조건적 언약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틴들은 성서지식으로부터 동떨어진 민중에 대한 관심과 종교적 사명감으로부터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성서의 대중화만을 목표로 성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번역성서의 출판 이후 발생한 교계 지도자 및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틴들의 성서번역은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고위성직자들의 처신』에서 틴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군주에 대한 불복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국왕의 권력을 세속적 영역으로 제한하고 성서에 기초한 통치규범을 제시하였다. 특히 헨리 8세의 이혼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틴들은 주류개혁가들과 달리 국왕의 이혼이 성서에 근거가 없다며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성서번역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번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처럼 틴들이 헨리 8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왕이 교회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틴들은 성서번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동시대 주류 개혁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 출발점은 그가 조건적 언약에 기초한 회중교회를 구상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그는 루터의 사상으로부터도 거리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은 틴들과 비

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썬빙글리의 언약사상과 다르며 오히려 언약사상을 체계화시켰던 블링거의 언약개념과 유사한 것이었다. 율법의 준수와 그것을 통한 언약의 실현이라는 명제는 틴들의 중심 테제였다. 하느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이를 통해 틴들은 교회의 성서독점을 해제시키고, 교황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자유로운 회중교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러한 구상에 기초하여 틴들은 새로운 번역어의 사용과 비판적 저술활동을 통해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상을 민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기존 성서에서 교회로 번역되어 있던 에클레시아를 회중으로, 프레스비테로스를 사제가 아닌 장로로 번역했다는 점은 그가 교회의 계서제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닌 비교적 자유로운 수평적 회집 또는 신앙인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였다. 이를 위해 민중들의 올바른 성서지식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했고, 틴들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국어 성서를 번역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탄생한 번역성서와 그의 저서들은 영어의 언어적 지위의 상승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엘리트로부터 도시 상공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틴들의 영역성서를 접한 민중들은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 성직자들과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성직자들의 권위를 뒷받침했던 성서독점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됨으로써 잉글랜드 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세워졌다. 비록 개혁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지지세력을 얻지 못해 그가 구상했던 교회가 실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틴들은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던 주류 개혁가들과 달리 성서번역을 고수하고 순교를 당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정신을 잉글랜드 사회에 구현했던 기념비적 인물이었다.

주요어: 윌리엄 틴들, 성서번역, 잉글랜드 종교개혁, 영역성서, 율법과 언약, 회중교회

학 번: 2009-20058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성서번역을 향한 길	6
1. 번역의 배경과 동기	6
2. 영역성서의 출판과 저술활동	11
III. 독자적 개혁의 추구	16
1. 세속권력에 대한 저항	16
2. 율법의 준수와 언약	25
IV. 성서의 권위에 기초한 교회	31
1. 성서의 권위와 번역에 대한 논쟁	31
2. 회중교회의 구상	35
V. 결론	43
참고문헌	46
Abstract	51

I. 서론

16세기 초 잉글랜드는 모국어 성서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이 금지된 서유럽 유일의 국가였다. 당시 잉글랜드는 1408년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서 제정된 ‘옥스퍼드 법령(the Constitutions of Oxford)’의 효력이 미치고 있었다.¹⁾ 이 법에 기초한 당국의 규제는 상당히 강력했다. 예컨대, 일반 민중이 번역된 성서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종교재판을 받아야 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²⁾ 이처럼, 성서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되었던 현실에서 영국 최초로 성서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은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 1494-1536)이었다.

틴들이 신약성서를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시기는 함부르크에 도착한 1524년 무렵이었다. 그는 잉글랜드 내에서 성서를 번역할 수 없었기에 1525년부터 쾰른과 보름스에서 신약성서를 출판하였다. 1526년부터 보름스 판 영역 『신약성서』가 잉글랜드로 유입되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틴들에 대한 교회당국의 추적과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틴들은 추적을 피해 스트라스부르, 마부르크, 안트베르펜 등지로 도피해 다니면서 구약성서의 일부도 번역하였다. 그 무렵, 그는 번역성서의 보급을 막는 교회당국과 고위성직자들을 비판하는 저서들도 함께 출판했다. 1534년 중반부터 틴들은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했던 잉글랜드 상인 포인츠(Thomas Pointz)의 집에 머물렀고 이듬해 5월 21일 그는 모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필립스(Henry Phillips)에 의해 체포되었다.³⁾ 1536년 8월 그는 벨기에 빌보어드(Vilvord)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같은 해 10월에 화형을 당했다.⁴⁾

자신의 목숨마저 걸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서를 번역한 틴들

1) David Daniell, *William Tyndale, a Biography* (New haven and London, 1994), p. 57. 옥스퍼드 법령은 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희생된 개혁가 중 대표적으로 위클리프와 롤라드파 및 토머스 빌니, 존 프리드, 존 램버트, 로버트 반즈, 테스트우드, 애덤 댄립, 조지 위샷트, 앤 애스큐 등이 있다.

3) 학자들 사이에서는 헨리 필립스 배후에 스톡슬리 또는 토마스 모어가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모어가 필립스와 같은 유형의 비밀 공작원을 잘 활용하였고 성사에 관한 논문을 입수해서 프리드(John Frith)를 죽음에 몰아넣은 것도 같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모어가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 Brian Moynahan, *William Tyndale: If God Spare My Life* (London, 2002), pp. 339-346.

4) John Foxe, Rev. George Townsend, Rev. Stephen Reed Cattley, eds., *The Acts and Monuments V*, (London, 1838), p. 121.

이 잉글랜드 사회에 끼친 영향은 작지 않다. 그러나 영국 종교개혁과 당시 역사적 의미 속에서 그의 독자적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잉글랜드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토대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틴들이 끼친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다. 먼저 1570년에 개정되어 출판된 『행적과 기념비(Acts and Monuments)』에서 폭스(John Foxe)는 틴들을 “잉글랜드의 사도”라고 일컬었고 틴들, 프리드 및 반즈를 잉글랜드 교회개혁의 주동자로 묘사하였다.⁵⁾ 또한, 1563년 출판된 『행적과 기념비』 초판에서 틴들의 죽음만 간략히 언급했던 폭스는 1570년에 출간된 개정판에서 교황과 성직자들에 대한 틴들의 비판적 관점을 확대, 강조하여 서술했다. 그 이유는 폭스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파문교서를 내렸던 교황에 대해 민중들로 하여금 적개심과 비판적인 견해를 형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틴들의 반 교황주의적인 태도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⁶⁾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 초기 틴들의 영향과 그의 역사적인 의미는 간과되었다. 틴들이 번역한 성서와 번역 이후 그가 보여준 행동과 영향은 분명 특정한 성향을 지닌 역사가들에 의해 상당 부분 평가 절하되었다. 특히, 틴들 사후 가톨릭 교회사들에게 틴들의 영향력은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소, 왜곡되기까지 했다. 예컨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러한 역사가들은 틴들을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을 뿐 그의 역할과 영향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7세기 교회사가인 풀러(Thomas Fuller)와 버넷(Gilbert Burnet)은 틴들을 일종의 단역 배우와 같은 위치로 전락시켰다.⁷⁾ 반종교개혁을 옹호한 가톨릭 교회사가였던 이들은 개혁

5)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 115. 『행적과 기념비(Acts and Monuments)』의 제목은 현재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 책은 그린달(Edmund Grindal)주교가 『순교자 열전 (Book of Martyrs)』이라고 일컬은 후 이 제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번역된 서적이 있다. 양은순 역, 『기독교 순교사화』, 생명의 말씀사, 2005. 폭스가 순교를 당한 개혁가들의 활동과 그 의미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행적과 기념비』라고 번역하였다.

6) 틴들을 다루는 폭스 이후의 저자들은 폭스의 글을 대부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전기의 출간 속에서 폭스와 같은 틴들의 정보제공자가 없었다면 그는 후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후 틴들에 대한 전기 저자들은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폭스의 저서에 의존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에드워드 홀의 연대기에 의존한다. 영국종교개혁에 있어서 최근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때때로 존 폭스가 모든 것을 만들어 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가 없었다면 틴들의 간결하고 깔끔한 번역성서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 있는 인식조차 가능할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7) Thomas Fuller, J. S. Brewer ed., *The Church History of Britain, From the Birth of Jesus Christ Until the Year M.DC.XLVIII* (Oxford, 1845), Gilbert Burnet,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of England* (Oxford, 1865), p. 262.

의 동인을 가톨릭 교회의 쇄신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틴들을 포함한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19세기 교회사가 허버트(Lord Herbert)도 “영국 종교개혁에 틴들이 끼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틴들의 영향은 과소평가되었다.⁸⁾

20세기에 이르러 틴들의 번역 동기와 종교적 견해를 다룬 주제들 뿐만 아니라 번역성서의 종교적 의미 및 언어와 문학적 측면의 영향도 다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틴들을 부각시키거나 재해석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틴들의 성서 번역과 그 의미의 일부만 강조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1937년 본(Gavin Bone)은 “틴들이 없었다면 성서는 지금처럼 누구나 손쉽게 소유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서의 대중화에만 초점을 맞춰 틴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⁹⁾ 최근까지 틴들연구의 권위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다니엘(David Daniell)은 모즐리의 전기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화된 조사를 통해서 그의 성서번역의 의미를 밝히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¹⁰⁾ 특히 그는 틴들 역 성서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문학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틴들의 문체와 산문이 영어에 끼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의 신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번역상의 표현은 에라스무스의 희랍어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설명한다.¹¹⁾ 틴들연구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당파적인 교리문제 속에 파묻힌 그의 언어적 위대함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틴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종교사적 의미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트린테루드(L. J. Trinterud)와 네픈(M. M. Knappen)은 틴들의 율법주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틴들을 청교도의 효시로 부각시켰으며, 번역성서 이외의 틴들 저서들에서 언약사상이 나타난다고 봄으로써 이후 프로테스탄트에 끼친 영향과 그 유산을 높게 평가했다.¹²⁾ 이들은 틴들 저서에 깃든 신학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특정 개혁사상의 원형으로까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8) Lord Herbert, *History of England under Henry VIII* (London, 1872), p. 469.

9) Gavin Bone, *Tindale and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nd Glasgow, 1938), p. 63.

10) 다니엘은 틴들학회 설립자임과 동시에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틴들의 전기뿐만 아니라 틴들의 번역기법과 문학적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틴들의 역사적 위치를 격상시킨 학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11) Daniell, *William Tyndale*, p. 244.

12) L. J. Trinterud, “A Reappraisal of William Tyndale's Debt to Martin Luther,” *Church History*, Vol. 31 (1962), pp. 24-45, M. M. Knappen, “First English Puritan,” *Church History*, Vol. 5 (1936), pp. 201-215.

있다. 율법과 언약에 대한 틴들의 견해는 종교개혁의 윤곽이 아직 뚜렷하지 않았던 16세기 초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이너한의 경우 틴들의 정치적 입장과 성서번역의 목적 양자를 설명하면서 성서번역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틴들의 성서번역 동기가 종교적 사명감에 기초하여 민중들에게 성서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며, 세속권위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를 단순히 정치 감각의 부재로 설명한다.¹³⁾ 종교개혁 과정에서의 틴들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콜린슨(Patrick Collinson)도 “틴들이 어떤 종류의 교회를 구상했는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¹⁴⁾ 그의 주장의 핵심 근거는 생애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틴들의 정치적, 신학적 관점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과 틴들이 다른 주류 개혁가들이 국교회와 같은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였으나 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서번역의 목적과 정치적 입장이 일정 부분 균형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결과 틴들은 16세기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개혁가들과 같은 부류로 평가되었고 그의 일부 독자적인 역할과 견해들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틴들은 현재 ‘민중을 위한 성서번역가’ 정도로만 평가받고 있다. 틴들에 대한 평가는 성서번역에 담겨있는 그의 의식과 태도를 당시의 주변 상황의 맥락 안에서 고려할 때 올바를 수 있다. 즉, 틴들이 수행한 성서번역의 의미를 단지 종교적인 영역이나 영문학 발전의 측면에서만 찾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의 성서번역이 종교적 사명감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성서번역 논쟁은 정치적인 성격 역시 내포한다. 또한 틴들이 전반적으로 루터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학적 해석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보여준다는 점과 성서를 번역하면서 사용했던 어휘들도 그가 보여준 독자적인 행보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틴들이 성서번역 문제로 겪게 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그가 고수했던 정치적 입장과 그가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것이 그의 성서번역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물론 틴들의 행적과 관련된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교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온전히 파악하고 조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순

13) Moynahan, *William Tyndale*, pp. 181-183, 219-211.

14) Patric Collinson, “Wiliam Tyndale and the Course of the English Reformation,” *Reformation*, Vol. 1 (1996), pp. 77-97.

종』, 『고위성직자들의 처신』과 같이 성서번역과 교회개혁에 대한 틴들의 입장이 반영된 저서들과 번역성서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그가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¹⁵⁾ 즉, 이 글에서 틴들은 민중을 위한 성서 보급이라는 목표를 넘어선 이상을 추구한 인물이었음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성서번역 초기 틴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II장에서 틴들이 성서를 번역한 초기 동기와 번역성서의 출판 및 그 유통과정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성서번역으로 인해 빚어진 국왕과의 마찰과 그에 대한 틴들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세속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성서를 번역했던 이유와 그 정치적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신학적 측면에서 틴들이 율법과 언약을 상당히 강조했던 이유를 밝힘으로써 주류개혁가들과 다른 그의 독자적인 모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성서번역과 교회에 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 틴들의 생각과 입장을 다룰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회개혁의 중요한 토대로서 모국어 성서를 번역하게 된 이유와 번역성서의 보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15) 번역성서를 포함한 틴들의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The Beginning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William Tyndale*(1525), *The New Testament*(1526), *A Compendius Introduction..... unto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1526), *The Parable of the Wicked Mammon*(1528), *The Obedience of a Christain man*(1528), *The Pentateuch*(1530), *The Practice of Prelates*(1530), *The Prophet Jonas*(1531), *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1531), *The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of St John*(1531), *An Exposition upoin the 5. 6. 7 Chapters of Matthew*(1533), *The New Testament*(1534),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1534), *The New Testament*(1535)

II. 성서번역을 향한 길

틴들은 촌부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서를 잉글랜드의 민중들에게 보급하고자 했다. 성서번역의 초기 동기는 라틴어 성서를 이해하지 못한 성직자들과 그로 인해 성서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민중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그것이 틴들이 성서를 번역했던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다. 성서번역과정과 번역성서의 출판이후 틴들이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성서번역과 관련하여 그가 보여준 독자적인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1. 번역의 배경과 동기

윌리엄 틴들은 1494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글로스터셔의 부유한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브리스톨과 글로스터셔 사이에 위치한 더슬리(Dusley)로 추정된다.¹⁶⁾ 틴들가문은 14세기 중엽부터 에식스(Essex), 노샘프턴셔(Northamptonshire), 노퍽(Norfolk) 그리고 글로스터셔를 기반으로 한 명망 높은 가문이었다. 그리고 윌리엄 틴들은 헛트 경 저택의 상속녀인 엘리스 헛트(Alice Hunt)와 토머스 틴들(Thomas Tyndale)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다.¹⁷⁾

틴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양모와 모직물 무역이 활발했던 글로스터셔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다양한 지역 방언과 외국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글로스터셔 북부 지역들로부터 시작되는 주된 무역로들은 서번강(Severn) 동쪽 지역을 통과했다. 이 길들은 남부와 서부로 이어져 있었고, 브리스톨로부터 런던 또는 그 이상의 서부 해안가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소식들과 외부의 영향이 쉽게 글로스터셔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 속에서 틴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

16) 윌리엄틴들의 출생시기와 출생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가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출생시기를 유추할 수 있으며, 그의 형제 에드워드와 존의 경력을 참조하면 출생지도 유추할 수 있다. Moynahan, *William Tyndale*, p. 2; Daniell, *William Tyndale*, pp. 9-15;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 114.

17) Daniell, *William Tyndale*, p. 10.

는 외부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틴들의 성서에는 이 당시에 익힌 지역 방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¹⁸⁾ 틴들은 번역성서 서문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농민들을 위해 글을 썼다”고 말한 바가 있을 정도로 민중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쓰고자 했다. 그가 구사한 방언과 관용구들은 그가 번역한 성서와 다른 저서들을 통해 영어 전반에 유입되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글로스터셔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경험은 틴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이후 틴들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자신의 언어적 재능을 훨씬 정교하게 다듬을 기회를 가졌다. 특히 1506년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한 틴들은 수사학과 라틴어의 기초를 다졌다. 그는 입학 초기에 말하기와 쓰기를 익혔고, 그 후, 베르길리우스와 키케로, 호라티우스의 서신, 오비디우스의 변신을 익혔다. 그 과정에서 운문을 산문으로 산문을 운문으로 옮기는 훈련과 번역을 연습하였다. 동시에 틴들은 아이스토텔레스의 『수사학(Rhetoric)』, 보이티우스의 『주제들(Topics)』, 키케로의 『신수사학(Nova Rhetorica)』 등을 접하면서 수사학적 소양을 키웠다.¹⁹⁾

그러나 틴들은 옥스퍼드의 성서교육 방식에 문제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틴들은 1530년에 저술한 『고위 성직자들의 처신(The Practice of Prelates)』에서 “그 대학[옥스퍼드]은 8년 내지 9년간의 이단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이단을 세밀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성서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성서접근에 대한 옥스퍼드의 엄격한 통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²⁰⁾ 그는 심지어 옥스퍼드가 “성서의 단어들과 공허한 견해에 관해 논쟁하느라 평생을 소모하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옥스퍼드는 이단자로 규정되었던 위클리프와 롤라드 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사회를 온전한 가톨릭 체제로 유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옥스퍼드는 성서지식의 무분별한 확대를 찬성하지 않았다.²¹⁾ 『행적과 기념비』라는 순교사화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16세기 교회사가 존 폭스는 “틴들

18) 틴들이 번역한 모세5경 중 창세기 31장에서 사용된 'toot-hell(Lookingout hill: 망보는 언덕)'은 글로스터셔의 방언이 성서 번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대표적인 예이다. Brian Moynahan, *William Tyndale*, p. 3.

19) Ibid, pp. 8-9.

20) William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Henry Walter, ed., *Expositions and Notes on Sundry Portions of Holy Scriptures together with The Practice of Prelates* (Cambridge, 1849), p. 291.

21) Daniell, *William Tyndale*, p. 31.

이 옥스퍼드식 성서교육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시점을 찾아가면서 옥스퍼드의 신학을 버리고 케임브리지의 신학적 노선을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했다.²²⁾

틴들은 케임브리지에서 그리스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과 동시에 루터의 서적과 그의 저작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18년 크로크(Richard Croke)가 케임브리지에서는 최초로 그리스어 공개강좌를 열었고, 이 강좌는 틴들로 하여금 신약성서 번역을 위한 기초를 닦을 수 있게 해 주었다.²³⁾ 특히 당시 케임브리지는 옥스퍼드보다 루터와 롤라드 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었으므로, 틴들이 이곳에서 반 교황주의적 태도와 기존 교회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²⁴⁾ 무엇보다도, 1520년 당시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첫 세대를 이끌었던 케임브리지 학자들 중 다수가 ‘화이트 호스(White Horse)’에 모여 루터의 서적들을 읽고 토론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²⁵⁾ 틴들이 이 모임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이후 틴들의 활동과 케임브리지 출신 개혁가들과의 친분으로 미루어 그가 당시 이 모임을 통해 개혁적 이념을 가진 학자들과 교류를 가진

22) 존 폭스(John Foxe)는 1516년 잉글랜드 동부의 링컨셔주 보스톤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 재학시절 그의 절친한 동료는 휴 라티머와 윌리엄 틴들이었다. 1563년 폭스는 『행적과 기념비』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순교자 열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영국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사료로서의 객관성에 의문을 가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틴들을 다룬 동시대 유일한 사료로서 틴들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틴들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그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폭스가 틴들을 미화하는 모습은 틴들의 저항의식이 동시대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재해석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료가 될 수 있다.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 115.

23) Moynahan, *William Tyndale*, p. 13.

24) Ibid., p. 11.

25)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틴들을 포함하여 조이(George Joye), 로이(William Roy), 반즈(Robert Barnes), 커버데일(Miles Coverdale), 빌니(Thomas Bilney), 라티머(Hugh Latimer), 크랜머(Thomas Cranmer), 프리드(John Frith), 램버트(Lambert), 리들리(Ridley), 테일러(Rowland Taylor), 토마스 아서(Thomas Arthur), 매튜 파커(Matthew Parker) 등의 개혁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hn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 415; A. G. Dickens, *English Reformation* (London, 1964), p. 91. 이 모임에 참석한 학자들의 이름은 1554년에 출판된 폭스(John Foxe)의 『순교자열전』(Books of Martyrs)에 등장하는 것이므로 엄격한조사가 필요하다. 폭스는 이 모임에 50여 명 정도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호스 참석자들의 명단은 당시의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정된 것이다. A. G. Dickens, *The English Reformation*, pp. 102-105; E. G. Rupp, *Studies in the Making of The English Protestant Tradition*, (Cambridge, 1947) pp. 15-46.

것으로 추정된다.²⁶⁾

그렇지만 틴들이 성서번역의 필요성을 피부로 절감하게 된 것은 케임브리지에서 떠난 이후였다. 특히 1522년 글로스터의 월시 가에서 가정교사로 보낸 몇 달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²⁷⁾ 이 기간 동안 틴들은 월시 가문이 주최하는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지역 고위성직자들과 더불어 루터 역 성서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1530년에 출판된 『모세 5경(Pentateuch)』은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고집 세고, 마음이 강박한 위선자들은[가톨릭성직자들] 어떠한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서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속인들이 모국어 성서를 접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성직자들은 이것을 접하는 속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였습니다. … 민중들의 일상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의 눈앞에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²⁸⁾

틴들이 보기에 글로스터서 지역의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하고 어리석어서 속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라틴어 본문은 고사하고 간단한 기도문조차 읽을 줄 몰랐던 속인들을 위한 최선은 그들이 직접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성서를 번역하는 것이었다.²⁹⁾ 물론 틴들의 이러한 소신은 고위성직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에라스무스의 1501년 작 소책자 『그리스도 군사의 교본(Enchiridion Militis Christiani)』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월시 가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틴들의 작업이 가진 가치를 인정해주었다.³⁰⁾

성서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틴들이 1523년 7월경에 당시 런던 대주교였던 턴스톨을 찾아간 사실은 번역 초기만 하더라도 그가 기존 권위에 대한 비

26) 틴들이 '화이트 호스'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학자들은 틴들이 그 모임을 통해 케임브리지 출신 개혁가들과 친분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Dickens, *English Reformation*, pp. 91-93; Daniell, *William Tyndale*, p. 51;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p. 130-133.

27)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 115.

28) William Tyndale, "Preface of the five books of Moses" Henry Walter, ed., *Doctrinal Treatises and Introductions to Different Portions of Holy Scriptures* (Cambridge, 1848), pp. 392-394.

29) Ibid., p. 39.

30) Ibid., p. 116, Brian Moynahan, *William Tyndale*, pp. 25, 33.

판과 저항보다는 순수하게 민중을 위해 성서를 번역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³¹⁾ 턴스톨이 1526년에 틴들 역 신약성서에 대한 분서집회를 단행할 정도로 보수적인 시각을 지닌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틴들은 그에게 성서번역을 위한 후원을 부탁하였다. 그 당시 틴들은 턴스톨에 대해 열려있는 시각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턴스톨을 성서번역에 대한 경제적, 학문적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인문주의자로만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³²⁾ 이는 틴들이 성서번역 이전까지는 가톨릭 고위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턴스톨은 틴들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번역성서가 출판된 후 턴스톨을 비롯한 가톨릭 인문주의자의 공세로 인해 그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졌다. 특히 번역성서가 출판되어 잉글랜드로 유입된 이후 그들에 대한 틴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그의 여러 저서들에서 잘 나타난다.

성서번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잉글랜드 내의 상황 속에서 틴들은 성서번역과 출판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1524년 4월에 유럽대륙으로 이동하여 성서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독일 어디에서 번역작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틴들이 도피 초기에 함부르크에서 잠시 머물다가 비텐베르크에서 1년을 지냈을 것으로 추측된다.³³⁾ 그리고 1525년에 다시 함부르크를 거쳐 쾰른에서 신약성서 번역을 마친 후 1526년 초 무렵 보름스에 위치한 쇠퍼(Peter Schoeffer)의 인쇄소에서 신약성서의 인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³⁴⁾ 함부르크, 안트베르펜과 같은 도시들에 주로 머물면서, 틴들은 구약 성서의 일부를 번역하였고 번역성서의 출판을 감독했다. 도피 중에 이러한 작업을 가능케 했던 것은 틴들의 경제적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어와 턴스톨이 틴들에게 자금을 보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심문하였는데 그들 중에 틴들의 형제인 존 틴들과 거상 험프리 몬머스가 포함되어 있었다.³⁵⁾ 특히 틴들의 주된 경제적 후원자가 몬머스였다는 사실은 스틸야드의 상인들을 통해 20파운드 이상이

31)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 118.

32) 모이너핸은 턴스톨이 성서번역을 후원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틴들을 순진한(navie) 인물로 평가한다. 이후 국왕과의 관계에서 보인 틴들의 태도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Moynahan, *William Tyndale*, pp. 92-93. 반면 다니엘은 틴들이 당시 맥락에서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한 것으로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다. Daniell, *William Tyndale*, pp. 83-85.

33) 비텐베르크에서 틴들과 루터와 접촉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34) Ibid, p. 134.

35) Ibid, pp 102-107.

여러 차례 바다 건너 틴들에게 전달된 사실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³⁶⁾ 몬머스는 틴들의 형제였던 에드워드, 존 틴들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상이었고, ‘그리스도교 형제단(Christian Brethren)’과 연관되어 있었다. 틴들은 그의 도움을 통해 도피 중 신약성서번역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저술활동과 구약 일부의 번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³⁷⁾

2. 영역성서의 출판과 저술활동

1526년 틴들 역 신약성서가 보름스에서 인쇄되어 잉글랜드로 유입된 이후 틴들은 지속적으로 성서번역의 정당성과 가톨릭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책들을 여러 권 저술하였다. 틴들의 번역성서가 출간된 이후 번역성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³⁸⁾ 펍웰(Henry Pepwell), 넥톤(Robert Necton)과 같은 런던 상인들이나 안트베르펜 서적무역의 대리인이었던 카이츠(Peter Kaetz) 또는 비어크만(Francis Byrckman)같은 여러 서적상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수입할 수 있었는데 틴들이나 루터의 서적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루터와 틴들의 책들은 잉글랜드로 들여올 때 밀반입되었고, 중계업자와 일부 서적상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 책들을 유통시켰다.³⁹⁾

서적의 유통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잉글랜드로 밀수입된 틴들 역 신약성서의 규모이다.⁴⁰⁾ 보름스 판 신약성서의 총 출판량을 최소 3000 권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 일반적인 출판량에 비해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에 속했다. 대략 1480년부터 1520년까지 한 가지 저서에 대한 유럽의

36) Tyndale, "Preface of the five books of Moses," p. xxvi.

37) 그리스도교 형제단은 개혁성향을 지닌 학자들과 번역자들을 후원하는 런던 상인들의 비밀 조직이었으며 독일 개혁가들의 새로운 사상에 공감하여 그들의 저작을 수입하고 배포하기도 했다.

38) Daniell, *William Tyndale*, pp. 176, 189.

39) F. C. Avis, *England's Use of Antwerp Printers, 1500-1540*, (Gutenberg, 1973), pp. 234-40.

40) 당시 유통된 틴들의 보름스 판 신약성서의 양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주장들을 제기해왔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당시 보름스 신약성서의 총 출판량이 해적판을 포함하여 6000권에 달했다고 설명하지만 페트릭 콜린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략 3000권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Daniell, *William Tyndale*, pp.187-189, Collinson, "William Tyndale and the Course of the English Reformation," p. 81, T. H. Darlow and H. F. Moule, *Historical Catalogue of Printed Editions of the English Bible 1525-1962* (London, 1968), p. 1.

평균 서적 출판량은 1000권과 1500권 사이였다.⁴¹⁾ 당시 독일의 인쇄업자들은 한 권을 대량으로 출판하기보다는 많은 수의 다양한 출판물들을 소량으로 출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일의 한 출판업자 쿠베텔(Heinrich Quentell)은 쾰른에서 한 서적 당 최대 400권의 책을 출판했다. 예외적으로 성경은 좀 더 많은 양으로 출판되었다. 루터가 번역했던 성서도 첫 출판량은 대략 4000부였다.⁴²⁾ 그러나 독일 내에서 출판된 독일어 판 성서의 수와 틴들의 영역성서의 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두 성서의 출판량을 같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서적에 대한 대량 인쇄는 인쇄업자에게 엄청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것을 의미했다. 상식적으로 독일 내에서 독일어 성서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출판하는 것보다 독일에서 잉글랜드의 영역성서의 수요를 파악해서 출판, 유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에서 틴들은 번역성서의 수요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성서를 인쇄, 출판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틴들이 성서에 대한 수요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신약성서를 대량으로 출판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서적의 대량생산과 서적 가격의 하락 덕분에 잉글랜드 내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은 영역성서를 이전에 비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이 번역성서들을 동료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중계업자 및 일부 서적상들로부터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번역성서의 밀수가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며 번역성서의 유통을 억제한 당국의 시도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성서를 포함한 밀수서적들은 와인이나 기름으로 가득찬 원통(barrels), 밀가루 포대, 옷감을 담은 짐짝들 속에 교묘히 숨겨졌다.⁴³⁾ 이러한 방식으로 밀수된 틴들의 신약성서 가격은 도매가격이 2실링 8펜스였고 소매가는 대략 4실링 정도였다. 당시 위클리프 신약성서 한 부가 2파운드 10실링이었는데 소매가 기준으로 틴들의 신약성서는 그에 비해 대략 10배 이상 저렴했다.⁴⁴⁾ 이처럼 가격차이가 컸던 이유는 기존의 번역성서들이 필사를 거쳐 만들어진 반면 틴들 역 신약성서는 인쇄를 통해 대량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⁴⁵⁾

41) L. Febvre and H. Martin, *The Coming of the Book: The impact of Printing 1480-1900* (Verso, 1976) p. 218. 이 당시 베네치아의 출판업자였던 알두스(Aldus)는 각 판본을 대략 1000권씩 출판하기도 했다. S. H. Steinberg, *Five Hundred Years of Printing*, (Harmondsworth: Penguin, 1974), p. 74.

42) Daniell, *William Tyndale*, p. 187.

43) Avis, *England's Use of Antwerp Printers*, p.184.

44) Moynahan, *William Tyndale: If God Spare My Life*, p. 98.

그렇다면 틴들 이전의 영역성서는 어떠했는가? 당시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성서는 4세기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서』였다.⁴⁶⁾ 이후 성서를 부분적으로 영역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⁴⁷⁾ 라틴어로 번역된 성서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고자 한 인물은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4-1384)가 처음이었다. 위클리프가 언제 어디서 성서번역 작업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380년경에 그가 신약성서 번역을 완성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382년경에 신구약성서를 완역하였다. 이 성서는 틴들이 성서를 번역하기 전까지 일반 속인들 특히 롤라드 파의 복음전도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위클리프 성서가 14세기 영어의 확립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과 이후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성서번역에 대한 영감을 불어 넣음으로써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추진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⁴⁸⁾

그렇지만 최초의 영역성서라는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의 성서는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잉글랜드에 인쇄술이 도입되기 전이었고, 번역된 성서는 일일이 필사를 거쳐야했으므로 평범한 속인들이 위클리프 성서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위클리프 번역 성서는 성서 원문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 않았다. 성서의 원문 즉,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아닌 라틴어 성서를 직역하는 데 머물러 있었기에 라틴어 원문을 대조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물론 이후의 개정판에서는 좀 더 명료해지기는 했지만 성서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⁴⁹⁾

기존 성서와는 달리 이해하기 쉬운 번역성서가 잉글랜드 내로 밀반입되자 그것을 막기 위한 교회당국과 고위성직자들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⁵⁰⁾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은 틴들을 이단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의 성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첫 포문을 열었던 인물은 바로 턴스톨이었다. 틴들의 신약성서가 1526년 5월 즈음부터 잉글랜드에 밀반입되기 시작하였고 턴스톨은 그해

45) 7세기 이후부터 위클리프 시기까지의 영역 성서 번역의 역사와 선구자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박영배, 「성서 번역의 역사와 위클리프 성서」, 語文學論叢 Vol. 18 (1999), p. 140.

46) Daniell, *The Bible in English: its history and influence*, (New haven and London, 2003), p. 25.

47) 박영배, 「성서 번역의 역사와 위클리프 성서」, pp. 132-133.

48) Ibid., pp. 140-146.

49) Ibid., p. 147.

50) Daniell, *William Tyndale*, p. 175.

10월 24일에 틴들의 신약성서와 그가 저술한 책들을 모두 찾아내어 불태울 것을 시 당국에 요청하는 글을 썼다.⁵¹⁾ 결국 틴스톨의 뜻대로 1526년 10월 28일에 성 바울(St. Paul) 성당 앞에서 틴들의 신약성서들을 불태우는 집회가 열렸다. 틴스톨은 이 집회에서 “틴들 역 신약성서가 수많은 오류와 잘못된 교리로 채워져 있다”고 비난하며 분서집회를 진행하였다.⁵²⁾

틴스톨의 분서집회에도 불구하고, 틴들의 활동은 위축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다른 저서들을 통해 성서 번역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피력 하였으며 나아가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교황, 그리고 당시 국왕 헨리8세의 문제까지 다루기 시작했다.⁵³⁾ 특히 틴들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저서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가 어떤 종교적,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1528년 10월 2일 마부르크(Marburg)에 소재한 한스 루프트(Hans Luft)의 인쇄소에서 인쇄, 출판되었고,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 높은 권위에 대한 복종 그리고 올바른 성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관련된 내용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신약성서를 번역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처지였기에 틴들이 이 책에서 성서번역의 의도와 의미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신약성서가 출간된 이후 틴들은 가톨릭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공세를 감내해야만 했고 헨리 8세 또한 틴들의 성서번역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당시 대법관이었던 모어의 추적을 피해 함부르크, 쾰른, 안트베르펜 등지에 숨어서 생활해야 했다. 틴들을 도운 혐의로 몬머스마저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런던탑에 갇히게 되었기에 틴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토마스 모어였다. 틴들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 국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야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악조건 때문이었다. 국왕의 전면적인 적대감마저 상대하기에는 그의 처지가 결코 여유롭지 않았다.⁵⁴⁾ 그러나 1530년 이후 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다. 1530년에 출판된 『고위성직자들의 처신』은 틴들 자신의 견해를 보다

51) Charles Sturge, *Cuthbert Tunstall: Churchman, Scholar, Statesman, Administrator* (London, 1938), p. 132.

52)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 337.

53) 이 주제들을 주로 다루는 틴들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The Obedience of a Christian man*(1528), *The Practice of Prelates*(1530), *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1531)

54) Tyndale, "The Obedience of a Christian man," *Doctrinal Treatises*, pp. 185-186.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펼친 저서였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교황의 절대 권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고위성직자들의 세속권력 남용 그리고 헨리 8세와 캐서린의 이혼 반대와 같은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Ⅲ. 독자적 개혁의 추구

틴들의 저서들, 즉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고위성직자들의 처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틴들이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군주에 대한 불복종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틴들은 그러한 통치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한다. 그리고 틴들은 자신의 성서번역을 정당화하고, 기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주류 개혁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루터와 달리 율법과 언약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강조하면서 구상했던 개혁의 방향을 드러내 보인다.

1. 세속권력에 대한 저항

틴들이 본격적으로 신약성서를 번역하던 시기에 헨리 8세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1521년 헨리 8세는 『7 성사 옹호 (Assertio septem Sacramentorum)』를 저술함으로써 루터와 개혁세력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황 레오 10세(Leo X)는 헨리 8세에게 '신앙의 수호자(Fidei Defensor)'라는 명칭을 수여하였고 헨리 8세는 교황으로부터 받은 그 명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심지어 로마와의 단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개혁가들의 저서로부터 그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헨리 8세는 가톨릭 교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⁵⁵⁾ 또한 그는 1530년 관리들에게 “교회의 이단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령할 정도로 가톨릭 교리를 고수했다.⁵⁶⁾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가톨릭 교리를 옹호했던 헨리 8세에 대한 틴들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 세속 권위에 대한 복종을 다룬 내용은 루터가 주장했던 두 왕국(Two Regiments)의 내용과 유사하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왕을

55) James K. McConica, *English Humanists and Reformation Politics under Henry VIII and Edward VI* (Oxford, 1965), p. 128.

56) Haigh, *English Reformation*, p. 88.

세웠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종해야한다고 주장했다.⁵⁷⁾ 틴들 역시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서술함으로써 그러한 견해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세속의 왕이 임의대로 옳고 그름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하느님이 할 일입니다. ... 하느님이 이들을 세우셨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⁵⁸⁾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틴들은 왕의 세속 권력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그는 “그[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8세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나를 위한 책이고 모든 왕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한 일화가 있을 만큼 그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 책을 단순히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의미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가 보였던 긍정적인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에 담긴 왕에 대한 무저항 또는 복종의 의무를 근거로 틴들이 군주의 절대적, 무제한적 권위를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생각했다.⁶⁰⁾

그러나 이 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틴들이 오히려 국왕 권력의 범위를 세속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일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틴들은 “국왕께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악을 억제하기 위한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⁶¹⁾ 더 나아가 틴들은 “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검[권위]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교황의 거짓된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러한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⁶²⁾ 이러한 언급은 당시 가톨릭 교리를 옹호한 헨리 8세의 문제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었다. 틴들은 하느님과 율법을 최우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왕이 지녀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가 왕의 절대권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복종을 수반하는 합법적인 권위는 반드시 하느님의 율법 또는 성서에

57) Daniell, *William Tyndale*. p. 244.

58) Tyndale, "The Obedience of Christian Man," pp. 178-179.

59) Mozley, *William Tyndale*, p. 143; Daniell, *William Tyndale*, p. 246.

60)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J. J. Scarisbrik, Richard Rex, Eamon Duffy, Christopher Morris 등이 있다.

61) Tyndale, "The Obedience of Christian Man," pp. 179-180.

62) *Ibid.*, p. 185.

기초해야 했다. 만약 국왕이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에 대해서도 틴들은 독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왕들이 하느님께서 금한 것을 명하거나 하느님께서 명한 것을 금지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느님뿐’이라고 말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⁶³⁾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따르면 국왕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둑이나 살인자로부터 당신의 자녀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하느님의 ‘대리인’”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⁶⁴⁾

틴들은 헨리 8세가 교황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앙의 수호자’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틴들은 교황을 옹호하는 왕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왕’, ‘신앙의 수호자’, ‘가장 거룩한 보좌에 앉을 큰아들’로 묘사되는 것을 비판하였다.⁶⁵⁾ 틴들은 교황이 인정한 ‘신앙의 수호자’가 교회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국왕 권위의 범위를 세속적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저서였다. 더 나아가 틴들은 『고위성직자들의 처신』에서 헨리 8세를 두 번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왕들은 교황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말했고, 교황이 프랑스 군주들에게 가장 기독교적인 왕이라는 명칭을 수여했던 사실을 독자들에게 주시킴으로써 “교황에 의해 그 명칭을 수여받은 대부분의 왕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독교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⁶⁶⁾ 이러한 언급은 교황 레오 10세(Leo X)가 헨리 8세를 가리켜 지칭한 ‘신앙의 수호자’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틴들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 7 성사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가 헨리 8세를 옹호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준 인물이 아님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 틴들은 “성사 교리 대부분이 성서적이지 않으며 7 성사 중 두 가지 즉, 성체 성사와 세례 성사만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틴들은 “성찬은 신이 세운 언약이며,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하라’고 말했다.”⁶⁷⁾ 그는 이어서 “세례도 역시 하느님의 말씀과 언약이며, 성직자들이 민중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죄사함을 위해 성직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63)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 244.

64) Tyndale, "The Obedience of Christian Man," p. 179.

65) Ibid., pp. 186-187.

66)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p. 259-270.

67) Tyndale, "The Obedience of Christian Man," p. 252.

름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⁸⁾ 틴들은 세례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혼인(Wedlock), 신품(order), 고백(penance), 회개(contrition), 속죄(satisfaction), 죄사함(absolution) 등에 대해 서술하면서 성찬과 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신약성서에 성사로서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영적인 언약도 내포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설명했다.⁶⁹⁾ 이러한 틴들의 서술은 가톨릭 성사를 옹호했던 헨리 8세의 견해와는 충돌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틴들은 왜 헨리 8세와 대립된 견해와 입장을 취하면서 그 권위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을까? 틴들이 국왕의 통치 규범을 논한 이유와 동시대 개혁가들과 다른 행보를 보여준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인위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교황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왕의 권위가 성서와 교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틴들은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고위성직자들의 처신』에서 교회에 미칠 수 있는 헨리 8세의 권위를 오로지 성서에 기록된 통치규범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들 저서뿐만 아니라 번역 성서 서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특히 틴들은 성서번역과 관련하여 왕의 통치규범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1533년에 출판된 『마태복음 5, 6, 7장 주석』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모든 왕과 통치자들은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 왕은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따르게 해서는 안됩니다.⁷⁰⁾

루터나 동시대 주류 개혁가들과 달리 틴들이 독자적인 교회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은 국왕이나 제후들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민중의 의식변화를 통해 교회개혁을 이끌어 내려했던 모습에서 발견된다. 즉 주류개혁가들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였다면 틴들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구상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모국어 성서를 접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성서지식과 그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틴들이 민중들로 하여금 교회와 기존 권위에

68) Ibid., p. 253.

69) Ibid., pp. 254-303.

70) Tyndale, "Expositions of Chps. V, VI, VII of Matthew's Gospel," *Expositions and Notes*, pp. 35, 82.

대한 비판적 의식을 이끌어 내려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⁷¹⁾ 그리고 번역성서의 추구하고 새로운 의식의 함양이 민중들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도록 틴들은 지속적으로 민중들을 독려하였다.⁷²⁾ 틴들은 민중들이 폭력으로 폭군에게 저항하도록 선동하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성서에 대한 그의 헌신과 믿음에 있어서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에 반하는 것에는 복종할 수 없었다.⁷³⁾

틴들은 헨리 8세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대부분의 동시대 주류 개혁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준다. 당시의 개혁가들과 틴들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던 1527년이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개혁가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개혁가들 대부분은 국왕의 이혼을 지지해주었다.⁷⁴⁾ 당시 주요 개혁가들은 교황과 가톨릭 고위성직자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리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국왕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헨리 8세의 이혼문제에 대해 로마교회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크랜머(Thomas Cranmer)와 크롬웰(Thomas Cromwell)은 국왕에게 로마와의 단절 및 수장권과 같은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헨리 8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왕의 이혼문제 및 성서 번역 문제에 있어서 틴들이 동시대 주류 개혁가들과 같은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면 그 역시 헨리 8세의 호감을 얻고 주류 개혁가들의 개혁노선에 합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가능성을 쉽게 가늠케 해주는 인물이 바로 크랜머이다. 크랜머는 헨리 8세의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역사적, 법률적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여러 대학으로부터 국왕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구했다. 국왕의 이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크랜머는 헨리 8세의 호감과 신뢰를 얻은 대표적인 동시대 개혁가 중 한명이었다. 국왕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훗날 그가 캔터베리 대주교에 오르게 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기도 했다.⁷⁵⁾ 또한 케임브리지 출신의 또 다른 개혁가 라티머(Hugh Latimer)는

71) 자세한 내용은 4장의 성서번역 논쟁을 참고할 것.

72) Tyndale, "The Obedience of Christian Man", p. 131, Tyndale, *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 pp. 10-12.

73)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 147.

74) 헨리 8세의 이혼문제를 옹호한 케임브리지 출신의 대표적인 개혁가들로 라티머(Latimer), 크랜머(Cranmer), 히스(Heath), 섹스톤(Shaxton), 등이 있다. M. M. Knappen, "First English Puritan", *Church History*, No. 3 (Cambridge), p. 213.

“하느님께서 국왕[헨리 8세]에게 남자 후계자를 허락하신 것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축복하는 증거”라고 말할 만큼 헨리 8세의 이혼을 지지하고 있었다.⁷⁶⁾

그러나 국왕의 이혼문제에 접근하는 틴들의 방식은 주류 개혁가들과 달랐다. 『고위성직자들의 처신』에서 틴들은 “왕의 이혼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결혼이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⁷⁷⁾ 또한 틴들은 “왕이 새로운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지 찾아볼 것”을 권면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했다.⁷⁸⁾ 형수와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레위기 구절에 기초하여 이혼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헨리 8세 측의 주장에 틴들은 그에 대비되는 신명기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⁷⁹⁾ 틴들이 성서에 근거하여 왕의 이혼문제를 반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잘 나타난다.

두 가지 본문[레위기(18:16), 신명기(25:21)]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 부분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성직자들이 왕의 이혼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검토했지만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읽은 성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왕이 이혼을 결정할 수 어떠한 규정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왕의 결혼은 유지되어야 합니다.**⁸⁰⁾

일차적으로 틴들은 헨리 8세의 이혼을 정당화할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판

75) Moynahan, *William Tyndale*, p. 182; D. G. Newcombe, *Henry VIII and English Reformation* (London: New York, 1995), p. 43.

76) Maria Dowling, *The Gospel and the Court: Reformation under Henry VIII, in the Protestantism and the National Church in Sixteenth Century England*, (Croom Helm, 1987), p. 44.

77)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 319.

78) Ibid., p. 323.

79) Ibid., pp. 323-324; 레위기 (Leviticus 18:16) “너는 네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이니라.” 신명기 (Deuteronomy 25: 21) “형제가 동거하는 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과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80) Ibid., p. 323.

단하였고, 정치적 융통성을 발휘했던 주류 개혁가들과 달리 성서에 근거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왕의 이혼을 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틴들을 융통성이 없었던 인물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틴들이 교회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주류 개혁가들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이혼에 그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다. 이미 틴들은 세속영역과 영적 영역에 속한 권위의 역할과 범위를 구분하였고, 이에 기초해 왕의 권위를 가급적 세속적 영역으로 제한하면서 그것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국왕과 타협하는 개혁방식에 쉽게 동참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⁸¹⁾ 이러한 태도는 1530년 11월 말부터 크롬웰이 틴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울지가 실각한 이후 국왕의 재상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는 국왕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고 틴들과 헨리 8세를 화해시킴으로써 그 개혁노선에 틴들을 합류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크롬웰은 그의 대리인 본(Stephen Vaughn)에게 틴들을 찾아 그를 설득하여 본국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올 것을 명할 정도로 틴들을 회유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⁸²⁾ 1531년 4월 무렵에 본과 틴들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본은 헨리 8세와 토마스 크롬웰에게 틴들에 대해 보고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 중 본이 국왕에게 보낸 서신은 당시 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 “그리스도를 믿는 왕께서 하느님께 너무나도 불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셨는데, 어찌하여 백성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하지만 제가 쓴 것이 진실이며 성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폐하께서 왜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명하신다는 말입니까!”⁸³⁾

1531년 4월 무렵에 이루어진 틴들과 본의 만남은 틴들이 기나긴 도피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틴들은 그 자리에서 성서번역과 비

81) Ibid., p. 341, Tyndale, "The Obedience of Christian Man," pp. 179-187.

82) 크롬웰은 국왕의 이혼문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국왕이 로마교회와 결별하도록 설득하기도 하였으며 틴들 사후 번역성서의 출판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Robert Demaus, *William Tyndale* (London, 1871), p. 336.

83) J. S. Brewer, *Letters and Papers, Foreign and Domestic, Henry VIII* (London, 1880), pp. 94-106.

판적 저술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고수하였다. 물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되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틴들에 대한 헨리 8세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성서번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헨리 8세는 교황 수위권을 제외하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1531년에 틴들이 출간한 책 『모어에 대한 논박』에 대해 헨리 8세가 “백성을 유혹하고 속이며 그들을 선동하는 책”이라고 말할 만큼 틴들에 대한 그의 반감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본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크롬웰이 본에게 회신한 내용에서 틴들에 대한 국왕의 부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나타난다.⁸⁴⁾ 틴들에 대한 국왕의 적대감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했던 크롬웰이 왕을 설득해준다는 약속을 본을 통해 전달하였지만 틴들은 그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⁸⁵⁾ 틴들이 크롬웰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서번역을 금하는 헨리 8세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이 시기의 틴들은 성서번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을 시기였고, 이 의지는 성서번역 초기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성서번역의 목표가 당시 틴들에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약성서까지 완역하려는 강한 사명감은 그로 하여금 크롬웰의 회유를 쉽게 수용할 수 없게 만들었던 주된 이유였다.⁸⁶⁾ 결국 헨리 8세가 번역성서의 보급을 허락하긴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틴들 사후에 일어난 일이었다.⁸⁷⁾ 성서번역 및 비판적인 저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왕이 성서번역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그의 명령에 순응할 생각이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주류 개혁가들과 다른 틴들의 독자적인 태도는 성서번역에 대한 입장에서조차 나타난다. 당시 대부분의 개혁가들도 틴들처럼 성서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성서번역을 포기하거나 유보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크롬웰이었다. 그는 속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강조했던 인물이었다. 예컨대 1536년과 1538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성직자들에 대한 훈령(Injunctions

84) Ibid., pp. 111-130.

85) Ibid., p. 105.

86) 그가 구약성서를 번역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과 언약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Tyndale, “Preface of the five books of Moses,” *Doctrinal Treatises*, p.400-405.

87) Daniell, *William Tyndale*, p. 335.

to the Clergy)’에서 크롬웰은 “만약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권유할 것”을 명할 정도로 영역성서의 보급에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⁸⁸⁾ 1536년에 틴들이 죽고 난 후 크랜머와 크롬웰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헨리 8세는 영어성서의 출판을 허용하게 된다. 1537년 헨리 8세는 토머스 매튜(Thomas Matthew)가 번역한 『매튜 성경』 1500부를 발간하도록 허락했으며 이것은 잉글랜드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민중들이 읽을 수 있게 된 최초의 영역성경이었다.⁸⁹⁾

이처럼 틴들 사후에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영역성서가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틴들이 성서를 번역하고 출간할 당시, 성서번역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틴들과는 사뭇 달랐다. 1534년 크롬웰이 국왕의 신임을 받아 비서장관의 지위에 오른 후 개혁성향을 지닌 인문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도원 개혁, 미신적 종교의식의 배제, 성직자 타락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였지만, 이러한 개혁적 과업들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그는 헨리 8세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⁹⁰⁾ 이보다 앞선 1531년에 크롬웰이 “나는 영어성경을 완성하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주류 개혁가 중 한명이었던 라티머에게 말한 사실로 보아 그가 이른 시기에 성서번역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⁹¹⁾ 요컨대 크롬웰은 비록 성서번역의 종교적 대의에 공감하기는 했어도 그것을 위해 더 폭넓은 개혁의 가능성까지 희생시키고자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크롬웰이 틴들을 설득, 회유했던 이유도 영어성서 보급에 대한 헨리 8세의 태도가 달라질 때를 대비하여 성서번역 작업에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⁹²⁾ 그가 종교적인 이유로 성서 번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음에

88) F. W. Bewsher, *The Reformation and the Renaissance 1485-1547* (London, 2008), pp. 75-79.

89) 『매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페이지에 ‘W.T’가 새겨져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성서의 번역이 윌리엄 틴들의 번역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 Moynahan, *William Tyndale*, p. 388.

90) A. J. Slavin, *Humanism reform and reformation in England* (New York: Wiley, 1969), p. 168.

91) Brewer, *Letters and Papers, Foreign and Domestic, Henry VIII*, p. 299.

92) 헨리 8세가 번역성서를 허락한 후 1539년, 크롬웰은 『그레이트 바이블』의 발간을 후원함과 동시에 성서번역가 마일즈 커버데일을 고용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번역성서의 출간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 윌리엄 틴들을 그의 개혁진영으로 합류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Brian Moynahan, *William Tyndale*, p. 388.

틀림없다.

틴들과 헨리 8세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구도는 적어도 틴들이 무조건적인 국왕옹호자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국왕의 이혼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도 틴들은 동시대 주류 개혁가들과 같은 견해를 공유하지 않고 성서에 기초해 자신만의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독립적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기초에는 민중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생각에 기초한다. 이러한 틴들의 독자적인 모습은 율법과 언약에 대한 강조에서도 발견된다.

2. 율법의 준수와 언약

기존 연구들에서 영국 종교개혁에 대한 루터의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흔한 방식들 중 하나는 틴들과 그의 성서번역에 루터가 끼친 영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 중 대부분은 틴들을 루터의 추종자로 표현하며 잉글랜드로 루터의 사상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로 규정한다.⁹³⁾ 그리하여 틴들은 루터사상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전파했던 잉글랜드 개혁가들과 같은 범주에 놓이게 되었고 개혁에 대한 그의 독자적인 견해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⁹⁴⁾ 잉글랜드 주류 개혁가들 대부분이 루터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배경에는 1520년 초 무렵, 잉글랜드에 루터의 저서나 그의 사상을 다룬 저서들이 이미 유입되어 서서히 독자층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⁹⁵⁾ 잉글랜드에서는 루터를 비롯한 대륙 종교개혁가들의 서적들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러한 서적들은 관심있는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소수의 지식인들의 비밀모임이 2장에서 언급되었던 화이트 호스 모임이었다. 잉글랜드 주류 개혁가들 중 다수가 이 모임을 통해 루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⁹⁶⁾

93) Gordon Rupp, *The Righteousness of God* (London: Hodder & Stoughton, 1953), p. 378.

94) Trinterud, "A Reappraisal of William Tyndale's Debt to Martin Luther," p. 35.

95) 나이트(Geoffrey Knight)는 1520년에 죽을 때 두 명의 사제를 곤빌 홀(Gonville Hall)에서 공부시킬 자금과 루터의 책 한 권을 남겼다. E. S. Leedham-Green, *A Concise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1996), p. 44, 옥스퍼드의 서적상 던(John Dorne)이 기록한 일일판매장부에는 1520년 1월 29일에서 12월 말 사이에 수십 권에 달하는 루터의 저서들이 판매되었다고 적혀있다. Dickens, *The English Reformation*, 103.

틴들 역시 다른 개혁가들처럼 화이트 호스를 통해 루터의 사상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틴들은 루터의 번역이나 신학적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거기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덧붙였다. 틴들의 로마서 주석과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틴들이 루터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의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율법(law)과 복음(gospel)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루터와 구별되는 틴들의 독창적인 신학적 견해를 보여준다. 번역성서 서문에서 틴들은 루터성서의 서문을 거의 절반가량 인용하며, 루터와 마찬가지로 복음과 율법, 구약과 신약,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다.⁹⁷⁾ 그러나 인용된 글의 중반부터 틴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성서적 인문주의(biblical humanism)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내었다.⁹⁸⁾ 이후 이것은 초기 복음주의 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개혁파(the Reformed)나 칼뱅파의 핵심 교의 중 하나의 형태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터파 내에서도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⁹⁹⁾

사실 루터도 1518년과 1522년 사이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 그는 창세기,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의 주석을 통해, 그리고 1520년에 완성된 「선행에 관하여(Von den guten Werken)」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선행들, 이를테면 금식, 순례, 정해진 기도문 암송, 미사참석 등은 율법적 의인을 위한 행위로 파악했기 때문이다.¹⁰⁰⁾ “모든 선행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고, 높고, 값진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라는 대전제 하에 루터는 당시 교회가 요구했던 종교적 선행들을 “공로를 위한 선행”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종교적 선행”과 “세속적 선행”사이의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했다.¹⁰¹⁾ 또한 루

96) 1521년 초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루터의 서적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으므로 화이트 호스 모임은 적어도 1520년 이전부터 존재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대륙의 개혁사상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뿌리를 내리게 만든 인물도 있었다. 빌니(1495-1531)는 화이트 호스 모임을 통해 대륙의 개혁사상을 케임브리지에 소개하였으며 라티머, 반즈, 토마스 아서, 램버트 등 차후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책임질 핵심 인물들을 새로운 신앙(루터의 사상)으로 전향시키기도 했다. Dickens, *The English Reformation*, p. 103.

97) Tyndale, "Epistle to The Reader", *Doctrinal Treatises*, p. 289.

98) 성서적 인문주의는 종교적 영역을 포함한 인간 경험의 모든 부분을 현실적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진정한 인문주의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성서적 인문주의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창조적 활동에 기인한다고 보며, 세속적 인문주의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친 것들을 되찾고자 한다.

99) Trinterud, "A Reappraisal of William Tyndale's Debt to Martin Luther," p. 26.

100)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4, p. 150.

터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을 적절히 구별하는 법을 아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참 신학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설교에서 모든 것은 이 양자의 구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¹⁰²⁾ 특히 1522년에 출판된 신약성서 서문의 주된 관심은 율법과 복음 사이의 올바른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루터는 두 왕국설을 기초로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과, 용서, 자유와 사랑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은 엄숙히 설교되어야 했다. 반면, 율법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의무로 가르쳐진다면, 그것은 의로운 죄인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혼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루터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노력들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활동과는 별개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스도 이후의 율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루터가 주장한 바는 틴들과 루터 사이의 신학적 간극을 보여준다. 루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알려주는 것처럼 율법의 폐기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이 도래하면 율법은 폐기된다고 주장했다.¹⁰³⁾ 그러나 루터는 율법의 폐기나 혹은 성취를 말할 때 율법 자체의 변화나 무효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복음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율법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했다. 즉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복음을 찾게 하는 기능에서 율법은 존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율법은 더 이상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이때 율법은 폐기된다.¹⁰⁴⁾

틴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은 루터와 달랐다. 틴들은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 선행으로 구원을 찾는 일을 중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¹⁰⁵⁾ 이러한 틴들의 주장은 하

101) M. Luther, “*Treatise on Good Works*,” in: *Luther’s Works*, Vol. 4, (Philadelphia, 1966) p. 23.

102) Weimar Ausgabe, 40 I, S. pp. 206-207.

103) Luther, *Treatise on Good Works*, pp. 444-445.

104) 그러나 루터는 인간을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복음 안에서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bid., pp. 344-345.

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율법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본 루터의 견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주장은 인간의 구원 및 율법과 관련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⁰⁶⁾ 틴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올바르게 준수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했으며 이 사랑은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율법의 준수가 하느님을 향한 지식으로 인간을 이끌 수 있으며 하느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¹⁰⁷⁾ 루터와는 달리 틴들은 사랑으로 율법의 준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로마서 주석의 번역에서 그 강조는 절정에 달한다.¹⁰⁸⁾ 그리고 틴들은 이러한 관점을 끝까지 고수했다. 반면, 루터는 율법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요소로서 사랑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러한 생각을 거부하였다.¹⁰⁹⁾ 이러한 측면에서 신앙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요소로서 사랑을 강조했던 틴들은 멜란히톤(Melanchthon)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¹¹⁰⁾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틴들이 율법과 언약의 개념에 기초한 회중교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율법에 대한 틴들의 강조는 단순히 루터와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루터의 신학사상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독자적 요소는 언약에 대한 틴들의 견해이다. 이스라엘의 성서 역사는 수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하느님과 인간의 언약을 다루고 있다. 구약의 할례(circumcision)와 신약의 세례, 구약의 유월절(Passover)과 신약의 최후의 만찬(Lord's Supper),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랑의 율법(new law of love)등은 인간에게 커다란 변화였지만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류의 역사에 하느님이 개입함으로써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¹¹¹⁾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1530년 무렵에 대륙의 흩어진 여러 저자들에 의해 정교한 사상의 형태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사상을 수용하지 않았다.¹¹²⁾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하

105) Tyndale, "Epistle to The Reader," p. 483.

106) Trinterud, "A Reappraisal of William Tyndale's Debt to Martin Luther," p. 28.

107) Tyndale, "Preface of the five books of Moses," *Doctrinal Treatises*, p.403.

108) Tyndale, "A Prologue Upon 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Romans," *Doctrinal Treatises*, pp. 486-488.

109)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Philadelphia: Westminster, 1953), pp. 683, 716.

110) Trinterud, "A Reappraisal of William Tyndale's Debt to Martin Luther," p. 29.

111) *Ibid.*, p. 34.

느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대한 강조는 틴들의 중심 테제 중 하나였다. 틴들이 언약을 중요하게 강조했던 이유는 그가 언약의 개념을 교회개혁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는 언약개념을 통해 교회의 성서독점을 해 제시키고, 교황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개혁에 적합한 개념임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예컨대 그는 모래 위에 세워진 기초(믿음)의 취약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느님의 율법의 바위가 아닌 단지 인간의 상상 위에 세워진 믿음(율법에 대한 사랑이 배제된)은 고난의 시기와 심판의 날에 언약(covenants)에 의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할 만큼 율법과 언약의 사이의 관계 또한 강조하였다.¹¹³⁾

율법과 언약에 대한 틴들의 견해는 그가 추구했던 개혁의 독자성을 파악하는 단서를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언약사상을 설파했던 개혁가들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언약사상을 처음 소개했던 인물은 취리히의 쾰링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였으며 그것을 발전시키고 후세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였다.¹¹⁴⁾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언약사상의 핵심은 서로 달랐다. 쾰링글리, 루터 그리고 칼빈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 관계에서 하느님의 주권과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관계를 중시했던 반면 불링거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역할과 의무를 동시에 강조했다. 믿음이 구원을 위한 언약조건이라는 것이다.¹¹⁵⁾ 틴들 역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그것을 통한 구원의 언약이 실현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불링거의 견해와 비슷한 점이 많다.¹¹⁶⁾ 언약에 대한 그의 많은 표현들이 언약의 쌍무적 관계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인간의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틴들은 언약관계에서 하느님 언약의 일방적 성격만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언약이 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이행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¹¹⁷⁾

112) Ibid., p. 44. 루터는 성서 일부분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언약사상이 그의 주된 번역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113) Tyndale, "Preface of the five books of Moses," p. 473.

114) 원종천, 「16세기 영국 청교도 언약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 역사신학 논총 (1999), p. 216.

115) Ibid., p. 218.

116) 물론, 틴들이 불링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117) 이 조건적 언약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일대일 동등한 입장으로 계약을 맺어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잉글랜드 교회의 신앙과 경건을 일으키기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Michael McGiffert, "William

이처럼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했던 틴들의 목적은 한 방향으로 향한다. 1534년 개정판 신약성서의 서문에서 틴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 전체에서 약속한 모든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주실 것입니다.”¹¹⁸⁾ 이 한 마디에 틴들이 민중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있다. 이 말은 성서의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율법의 준수를 통해 언약이 실현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모인 이들이 바로 회중(교회)이었다. 틴들은 “하느님의 권위 아래에서 언약으로 결속된 각각의 회중들은 국가와는 분리되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조건적 언약에 기초한 회중교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¹⁹⁾ 이는 루터가 기본적으로 회중교회를 지향했다 하더라도 루터와 틴들 사이의 교회관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며, 틴들이 그의 신학사상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주류 개혁가들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와는 달리 틴들이 구상한 독자적인 개혁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Tyndale's Conception of Covenant”,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vol. 32 (1981), pp 167-184.

118) Tyndale, “Epistal to Reader,” *Doctrinal Treatises*, p.389-390.

119) Tyndale,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p. 501, Tyndale, “Expositions of Chps. V, VI, VII of Matthew's Gospel,” *Expositions and Notes*, p. 36.

IV. 성서의 권위에 기초한 교회

틴들이 구상했던 교회는 당시 제도 교회가 아닌 비교적 자유롭고 수평적인 신앙인들의 모임이었다. 그가 기존교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한 교회상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구체적이고 완성된 청사진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틴들이 기존 교회와 다른 독자적인 교회를 생각했던 여러 흔적들과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가 바로 자국어 성서번역이었다. 특히, 영어성서의 보급은 민중들의 비판적 의식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를 위해 틴들이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일부 번역어들과 교회 및 성직자 비판은 기존 교회의 위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서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들과 교회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틴들의 성서번역 목적과 교회구상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1. 성서의 권위와 번역에 대한 논쟁

“하느님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면 몇 년 안에 밭을 가는 농부가 당신보다 성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¹²⁰⁾ 틴들이 1523년 초여름, 한 신학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말은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서를 보급하려는 그의 의지가 담긴 말이었다. 그의 이 말은 신약성서의 출판으로 민중을 일깨우고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토대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그의 영어성서의 출판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출판량이 3000권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았다. 틴들은 독자들에게 신약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렸는데 이러한 표현은 성서번역 방식의 기준을 어디에 놓았는지 가늠케 한다.¹²¹⁾ 틴들은 교회와 성직자들에 의해 거짓되고 왜곡된 성서지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이 성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성서가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할 이유와 그것을 반대하는 성직자들

120) Foxe, *The Acts and Monuments V*, p. 117.

121) Tyndale, "A Pathway into the Holy Scripture", *Doctrinal Treatises*, p. 8.

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개진했다.¹²²⁾

그러나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은 모국어 성서의 출판을 허용하지 않았고 성서가 속인들에게 보급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울지, 턴스톨, 피셔(John Fisher) 그리고 토마스 모어와 같은 가톨릭 측 고위 인사들은 틴들의 성서가 잉글랜드 내로 반입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겼는데, 이는 성서에 대한 속인들의 무분별하고 자유로운 해석이 난무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1528년 3월에 턴스톨이 모어에게 보낸 서신은 루터와 틴들에 대한 경계를 잘 보여준다.¹²³⁾ 특히 모어는 틴들의 영역성서를 잉글랜드 전체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간주할 정도로 모국어 성서번역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모어는 구전을 통해 신앙을 형성했던 교회의 전통을 깨도록 미혹을 받고, 교회의 교의와 관행들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기초해야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사상도 비판했다.¹²⁴⁾ 이에 대응하여 틴들은 “이들에게서 모국어로 된 성서를 온전히 속인들에게 보급할 가능성과 의지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¹²⁵⁾ 이처럼 가톨릭 세력에 대항하면서 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고, 더 강한 논조로 성서번역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예컨대, 구약성서를 본격적으로 번역했던 1530년에 이르러 틴들은 『모세 오경』 서문에서 모국어 성서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더욱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¹²⁶⁾

모국어 성서번역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서의 사이의 권위 문제에서도 틴들과 모어 사이의 강한 견해차가 나타난다. 성서의 권위에 대한 틴들의 견해는 신앙형성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교회보다 성서를 강조했던 루터의 ‘오직 성서(Sola Scriptura)’와 비슷한 맥을 취한다. 이 사상은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것도 교회가 명령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교회는 성

122) Tyndale, "The Obedience of a Christian man", pp. 144-147.

123) Charles Sturge, *Cuthbert Tunstall: Churchman, Scholar, Statesman, Administrator* (London, 1938), p. 363.

124) Tomas More, eds., C. Lawler "A dialogue concerning heresis",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VI, (New Haven and London, 1981), pp. 447-448. 모어는 교회의 전통을 구전적으로 전달되는 계시의 일부로 정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E. Flesseman Van-Leer, "The controversy about Scripture and Tradition between Thomas More and William Tyndale",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Vol. 43 (Leiden, 1951), pp. 143-165.

125) Tyndale, "A Passway into The Holy Scripture", p. 4.

126) Tyndale, "Preface of the five books of Moses," pp. 392-393.

서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암시한다.¹²⁷⁾ 그러나 가톨릭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어는 “불확실한 세계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원천이 교회이며 가톨릭 교회를 통해 하느님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¹²⁸⁾ 모어는 성서보다는 가시적인 제도로서의 ‘교회’를 통해 가톨릭적 교리와 신앙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교회는 1500년 이상 기독교의 전통을 유지했던 실체인 동시에 질서와 안정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¹²⁹⁾ 반면, 틴들은 모어의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틴들은 “성서 전반을 살펴보면 … 교회 이전에 복음이 존재하며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회중(congregation)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권위보다 성서가 우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³⁰⁾

한편, 고위성직자와 틴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이면에 민중들의 독해능력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역 성서가 유통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을 능력이 없다면 그 의미 역시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디킨즈는 “영국사에서 당시 책을 읽을 수 있는 민중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매체를 통해 혁명적 사상의 타당성을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¹³¹⁾ 마크 에드워드도 명백히 비슷한 관점을 취하면서 대중운동의 형성과 인쇄기의 활용에 대한 민중의 자각적 시도를 중요하게 설명한다.¹³²⁾ 이 주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쇄문화, 인쇄소 운영, 편집, 유통, 그리고 서적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의 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틴들 역 성서가 출판될 당시 독해능력을 가진 민중들의 수와 더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바로 구전문화이다. 롤라드파의 구전을 통한 성서의 가르침이 이미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있었던 부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¹³³⁾ 모어 역시 종교적 믿음을 민중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과 언어적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무엇보다도 틴들을 비롯한 개혁가들과의

127) Flesseman Van-Leer, “The Controversy about Ecclesiology between Thomas More and William Tyndale,” p. 70.

128) Thomas More, R. Marious, J. Lusardi, eds.,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VI (New Haven and London, 1973), p. 1279.

129) Moynahan, *William Tyndale*, p. 168.

130) Tyndale, *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 p. 24.

131) A. G. Dickens, *Reform and Society in Sixteenth-Century Europ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6), p. 51.

132) Mark U. Edwards Jr, *Printing, Propaganda, and Martin Luther* (California, 1994), p. 1.

133) Dickens, *English Reformation*. p. 34.

논쟁에서 모어가 영어 저작을 활용하여 반론을 펼쳤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모어는 이단자들을 막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했는데 그 중 특히 출판물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¹³⁴⁾ 영어성서의 확산을 반대했던 모어는 “잉글랜드 인구의 2/3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서가 번역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과장된 표현이긴 하나 그의 표현은 영어가 이미 잉글랜드인들의 중심적인 언어가 됨과 동시에 영역성서의 민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¹³⁵⁾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틴들이 성서를 번역했을 당시에 이미 인쇄된 매체를 통해 민중에게 새로운 사실들이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의식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틴들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성서를 번역했던 점과 이후 저술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틴들이 인쇄된 저서를 통해 민중들에게 그의 생각을 호소하려는 의도와 확신이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해외로 도피 중이었던 틴들이 잉글랜드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인쇄물이었다.¹³⁶⁾ 같은 맥락에서, 모어 역시 틴들을 반박하기 위해 모국어 된 글을 적극적으로 집필하였다는 것도 이들의 견해를 수용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틴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잉글랜드 전역으로 가시화되거나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번역성서와 다른 저서들의 등장은 영어를 사용하는 일부 잉글랜드인들의 의식과 비판적

134) William Clebsch, *England's Earliest Protestants, 1520-1535* (New Haven, 1964), p. 309.

135) More,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New Haven and London, 1964), p. 13.

136) 종교개혁 초, 개혁사상이 담긴 서적들이 당시 유럽대륙에 끼친 영향에 비해 이러한 출판물들이 잉글랜드에서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잘 되지 않았다. 페트그리는 개혁사상의 확산에 있어서 인쇄물의 역할을 두 개의 장을 할애하면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1520년대와 1530년대 시기의 잉글랜드 내 개혁사상이 담긴 서적물의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Andrew Pettegree, *Reformation and culture of Persuasion*(Cambridge, 2005),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당시 개혁사상이 담긴 서적들이 잉글랜드인들의 의식향상에 유럽대륙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파듀는 1520-30년대에 출판물을 통해 잉글랜드 민중들 사이에 혁명적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근대적 공론장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Orlaith, O'Sullivan, *The Bible as Book: The Reformation* (London, 2000); Paul Arblaster, Gergerly Juhász, and Guido Latré, *Tyndale Testament* (Brepols, 2003); Bradley Pardue, “A Little treatyse in prynte and euen in the english tongue: Appeals to the Public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English Reformation,” Univerisy of Tennessee, 2010. pp. 2-7.

안목을 형성하는데 추진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의 출발점은 민중이 이해하기 쉬운 모국어 성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던 1526년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잉글랜드에 ‘중요한 변화’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모든 일반적인 남성, 여성,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신약성서 전체를 영어로 읽고 들을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반 성직자들이 이전의 『불가타 성서』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성서의 일부내용만 가르쳤던 교회의 성서 독점의 시대도 함께 막을 내렸다. 성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민중들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신감과 확신을 주었고, 그 결과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강화시켰다.¹³⁷⁾

2. 회중교회의 구상

잉글랜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심오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헨리 8세는 틴들을 여전히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536년 4월 13일에 본이 크롬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에서 만약 “양국 간의 합의가 즉각적으로 행해진다면 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늦지만은 않다”고 조언하였지만 헨리 8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¹³⁸⁾ 결국 틴들은 1536년 11월 초에 브뤼셀 외곽의 빌보어드 성에서 화형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이끌 만큼 위험했던 성서번역에 확고한 사명감을 심어 넣었던 요소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성서번역을 통해 개혁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틴들의 의지였다.

틴들 역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일부 어휘들은 그가 어떤 교회를 구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를 회중(congregation)로 번역한 어휘선택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로부터 엄청난 반

137) Joseph Martin, *Religious Radicals in Tudor England* (London, 1989), pp. 77-3. 이러한 현상은 폭스의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폭스는 틴들의 성서를 접한 후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형성했던 사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글로스터셔 출신의 법률가였던 베인햄(James Bainham)과 도시 하층민이었던 스테이플(Lawrence Staple), 런던 가축상이었던 튜커스버리(John Tewkesbury), 몬드렐(John Maundrell)등이 있었다. Foxe, *The first volum of the ecclesiastical history contaynyng the actes and monuments* (John Day; London, 1563), pp. 1187, 1165-1167, 2073; Foxe, *The Acts and Monuments IV*, p. 688.

138) Brewer, *Letters and Papers, Foreign and Domestic, Henry VIII, Volume 10*, (London, 1887), pp. 259-274.

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틴들 역 신약성서의 번역에 적극적으로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였고 그 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토마스 모어였다. 1529년 모어는 『이단들에 관한 대화(the Dialogue Concerning Heresies)』를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출판함으로써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틴들의 신약성서가 잘못된 것임을 설파했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두 권은 성인들과 순례자들 그리고 기적들과 이단교파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루터와 틴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제 3권은 교회와 성서가 동등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3권 8장에서는 틴들의 신약성서와 잉글랜드 내의 루터 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권에서 모어는 틴들의 신약성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틴들의 번역에 오류가 상당히 심해서 수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의도적인 오역이며 ... 눈멀고 무식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 책 전체에 수많은 오류들이 퍼져있음을 볼 수 있다.¹³⁹⁾

모어는 이 책에서 “틴들의 신약성서가 상당히 많은 오류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하며 틴들의 번역성경이 순수한 민중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모어가 말하는 오류는 주로 틴들이 번역했던, 회중, 사랑,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모어는 “교회라는 단어를 회중이라는 단어로 속되게 번역했다. 그리고 사제를 장로라고 번역하고 자선을 사랑으로 번역했다. ... 틴들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악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틴들의 번역성서에 대한 적개심을 가감없이 드러내었다.¹⁴⁰⁾ 특히 에클레시아를 회중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 모어는 “보편적이며 가시적인 제도로서의 교회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틴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¹⁴¹⁾ 모어는 『틴들의 응답에 대한 논박(Confutation of Tyndale's Answer)』에서 “오로지 하나의 믿음을 위한 공간만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믿음은 가톨릭

139) Thomas More,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VI, p. 292.

140) More, Stephen Merriam Foley, Clarence H. Miller, eds,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New Haven 1985), p. 14.

141) More, Thomas Lawler, R. Marious, eds,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VI. (New Heaven and London, 1981), p. 681.

릭 교회(catholique chyrch)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교회라는 명제를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모어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⁴²⁾ 틴들의 번역성서에 대한 모어의 적대적인 태도는 그의 번역성서가 잉글랜드 내에서 상용화 될 경우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위계가 와해될 것에 대한 우려에 기인했다. 모어는 “가톨릭 진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틴들의 서적을 읽지 않는 것이다”고 말할 정도로 틴들 서적의 이단성을 강조하려고 했다.¹⁴³⁾ 따라서 모어에게 있어서 틴들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이후 모어가 틴들을 견제하는 글을 1532년과 1533년에 연이어 집필했다는 사실은 틴들의 번역성서와 그가 쓴 책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어의 중요한 과제였음을 잘 보여준다.¹⁴⁴⁾

그렇다면 당시 맥락에서 교회와 회중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루터는 성서가 교회를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회집(會集)을 가리킨다. 이 공동체 혹은 회집은 참된 신앙, 희망 및 사랑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삶 및 본성은 육적 회집이 아니라 한 신앙 안에 있는 마음들의 회집이다. 따라서 그들이 육적으로는 천 마일 떨어져 있다 할 지라도 그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설교하고 믿고 바라고 사랑하고 사는 한 여전히 영 안에서 한 회집이라 불리운다. 이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에 근거한 영적 일치라 뜻한다. 그리고 이 일치만이 기독교를 창조하기에 충분하며 그것 없이는 어떤 일치도 -그것이 도시, 시간, 사람, 일 혹은 그 외 무엇의 일치일지라도- 기독교를 창조할 수 없다.¹⁴⁵⁾ 둘째 방식으

142) Moynahan, *Book of Fire: William Tyndale., Thomas More and The Boody Birth of The English Bible*, (London: Abacus, 2010), p. 244.

143) More, Stephen Merriam Foley, eds,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p. 15.

144) 모어가 『이단에 관한 대화(the Dialogue Concerning Heresies)』를 집필한 이후 틴들과 틴들이 저술한 서적들에 대한 비판을 다룬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1532년 『틴들의 응답에 대한 논박(Confutation of Tyndale's Answer)』, 1533년 『해명(Apology)』이 두 서적은 『이단에 관한 대화(the Dialogue Concerning Heresies)』보다 틴들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틴들의 응답에 대한 논박』은 틴들을 적그리스도로 설명하며, 틴들이 주장했던 신학적 견해들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였다. 『해명』은 이전의 책들에 비해 틴들에 대한 내용상의 큰 진전은 없다. Moynahan, *Book of Fire*, p. 243.

145) Luther, *On the Papacy in Rome Against the Most Celebrated Romanist in Leipzig*(1520), LW 39:65.

로 기독교는 집이나 교구나 주교구나 대주교구나 교황청 안에 있는 회집이라 불리운다.¹⁴⁶⁾ 이것은 제도로서의 교회이다. 루터는 이 두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는 "영적이고 내적인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이고 외적인 기독교"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외적인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법과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 안에는 모든 교황들, 추기경들, 주교들, 수도원장들, 사제들, 수도사들, 수녀들 및 의적인 것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포함된다.¹⁴⁷⁾ 세번째 방식으로 교회라 불리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건립된 집들"이다.¹⁴⁸⁾ 이러한 기초 하에 루터는 초기에 회중주의를 지향했으나 결국 독일에서는 국가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종교 개혁의 긴급성이 루터의 초기 회중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했다. 만약 교회가 개혁되려고 한다면 정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했다. 루터는 제후를 비상주교(Notbischof)라고 했다. 방문 제도를 통해 지역 제후는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맡았다. 결국 국가 교회망이 독일에서 출현했다.¹⁴⁹⁾

틴들은 『모어에 대한 논박』에서 에클레시아를 회중으로 번역한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루터와 비슷한 맥락으로 ‘교회(church)’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정리하였다.¹⁵⁰⁾ 예컨대, 첫째는 교회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둘째로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 주교등과 같은 성직자들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하느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의 뜻을 의미했다. 그러나 틴들에게 진정한 하느님의 교회는 위에서 언급된 것들 중 세 번째 것 즉, 회중교회를 의미했다. 그리고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먼저 틴들은 “바울이 말하길 내가 온 힘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였다.(갈라디아서 1장 13절)”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교회는 성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¹⁵¹⁾ 이어서 그는 로마서 16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16절의 구절들을 근거로 “성경 전부를 통틀어, 오로지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닌

146) Ibid., LW 39:69.

147) Ibid., LW 39:70.

148) Ibid., LW 39:71.

149)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Tennessee, 1988), p. 97.

150) Tyndale, *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 pp. 11-12.

151) Ibid., p. 13.

모든 여러 장소에서 하느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정의하였다.¹⁵²⁾

교회에 대한 번역어 선택에서 드러나듯이 틴들은 계서제(階序制, Hierarchy)의 모습을 띤 제도교회가 아닌 수평조직으로서의 회집이 진정한 교회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틴들은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먼저 가톨릭 교회의 계서제를 부정하였다. 그 첫 단계가 바로 가톨릭 성직자들의 비판이었다. 틴들은 고위성직자의 처신에서 사제(priest)와 주교(bishops)는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 사이의 위계적 구분도 인위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 누렸던 주교들의 전통적 지위와 권위가 인위적인 것임을 강하게 주장했다.¹⁵³⁾ 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중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또는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church)”라고 정의했다.¹⁵⁴⁾ 이 말은 주교나 사제와 같은 위계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중들이 서로 모여 성서적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평적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 여기서 틴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영어로 설교나 기도가 행하여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틴들은 성서지식에 대한 당시 성직자들의 무지함도 함께 비판하였다.¹⁵⁵⁾

결국, 에클레시아의 번역이 제도교회에 대한 권위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고, 틴들은 그 권위의 기초를 다시 정의하고자 했다. 틴들은 에클레시아가 ‘교회(church)’로 번역되어야 한다면, 그 교회의 의미는 상당히 평범한 의미를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마귀의 교회, 사단의 교회, 죄인들의 교회 등의 특정한 집단 정도를 가리키는 의미밖에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⁶⁾ 결국, 틴들은 에클레시아를 ‘회중’으로 번역함으로써 제도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특히 교황제에 대한 부정은 틴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틴들은 『악한 mammon의 비유』에서 교황과 그를 따르는 추기경, 주교,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152) Ibid., p. 13.

153)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p. 270-272.

154) Tyndale, "Expositions of Chps. V, VI, VII of Matthew's Gospel," *Expositions and Notes*, p. 12.

155) Tyndale, "The Obedience of a Christian man", pp. 144-147.

156) Tyndale, *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 p. 45.

자들이며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정도로 교황제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개진했다.¹⁵⁷⁾ 이후 『고위성직자들의 처신』에서 그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교황과 추기경 및 주교들은 예수를 빌라도 앞에 붙잡아온 바리새인이나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¹⁵⁸⁾ 이를 바탕으로 틴들은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와 존립의 이유를 부정했다. 흥미롭게도 에클레시아의 번역이 교회의 수직적 위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킹 제임스 성서』가 출간 될 당시에도 목격된다. 『킹 제임스 성서』는 에클레시아를 ‘회중’이 아닌 ‘교회’의 뜻으로 선택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제임스 왕 당시 영국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서서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누렸던 강력한 수직적 위계구조를 가졌던 배경과 관계가 깊다.¹⁵⁹⁾

교회의 위계구조가 진정한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민중들에게 인식 시키기는 과정에서 성직자의 권위를 부정한 것 이외에도 틴들은 속인과 성직자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틴들은 성례 집행에 있어서 성직자 고유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틴들은 제도나 의식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회중에 의해서 임명된 신실한 사람(장로)도 세례를 집행 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⁰⁾ 다른 한편으로, 틴들은 속인과 성직자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지 않음을 성직자 결혼문제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에서 그는 성직자들이 아내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직자들이 속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인위적인 도구로서 독신을 유지하는 것을 비판했다.¹⁶¹⁾ 그리고 틴들은 교회의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성직자가 아닌 속인(교회 관리인)이 십일조와 같은 교회의 수입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²⁾ 이처럼 틴들이 성직자들과 속인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부정하고 성직자 고유의 역할 중 많은 부분들을 속인들에게도 열어주려고 했던 사실은 그가 회중교회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틴들은 신앙인들이 모여 영어성서를 읽는 것을 듣고 믿음을 키우

157) Tyndale, "The Parable of The Wicked Mommon," *Doctrinal Treatises*, p. 43.

158)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p. 240.

159) Moynahan, *William Tyndale*, p. 105.

160) Tyndale, "The Obedience of a Christian man", p. 257, Tyndale, "A Brief Declaration of the Sacraments," *Doctrinal Treatises*, p. 357.

161) *Ibid.*, p. 232.

162) Tyndale, "The Practice of Prelates," p. 336.

며,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했고 그러한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민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¹⁶³⁾ 그리고 이를 통한 민중들의 의식변화와 향상을 토대로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 전까지 세속권력에 타협하거나 주류 개혁가들의 개혁노선에 합류하지 않은 채, 구약성서의 번역과 저술활동을 지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순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국어로 된 인쇄매체를 통해 잉글랜드의 민중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인물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틴들 이외에도 해외 도피 중에 개혁적 저술활동을 펼친 인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1525년과 1535년 사이에 나온 개혁적 출판물 중 틴들의 저작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⁶⁴⁾ 즉, 틴들은 인쇄물을 통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교회개혁에 대한 견해를 민중들에게 피력했던 인물이었다. 성서번역 이후의 전반적인 틴들의 삶을 살펴보면, 오로지 그가 민중의 교화와 의식향상에 집중했던 모습만 나타난다.¹⁶⁵⁾

궁극적으로, 틴들이 번역성서를 통해 기존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번역어의 선택에서도 잘 드러난다. ‘에클레시아’에 대한 번역어 선택과 비슷하게도, 틴들은 ‘자선(Cheryte)’을 ‘사랑(loue)’으로 번역하고, ‘프레스뷔테로스(πρεσβύτερος)’를 사제(preste)가 아닌 ‘장로(elder)’로 번역하였다. 틴들의 교회관이 담겨 있는 이 번역어들은 이후 『킹 제임스 성서』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맥락처럼 가톨릭이나 국교회처럼 제도화된 교회는 자선을 도덕적 후광으로서 활용하고자 했으므로 사랑 보다는 자선을 선호했다. 그러나 틴들은 로마서 서문에서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모든 선행은 무익하고 헛되며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자선에는 믿음과 사랑이 동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틴들은 회중들이 국가와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프레스뷔테로스를 ‘장로’로 번역한 근거를 제시하였다.¹⁶⁶⁾ 틴들 사후에도 몇몇 프로테스탄트 지도

163) Tyndale, "Expositions of Chps. V, VI, VII of Matthew's Gospel," pp.108-109.

164) 1525-35년 사이 해외 도피 중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친 잉글랜드 개혁가들 중 피쉬(Simon Fish), 반즈(Robert Barnes), 프리드(John Frith), 조이(George Joye), 로이(William Roye)등이 있다. Pardue, "A Little treatyse in prynte and euen in the english tongue" p. 2.

165) Tyndale, "A Pathway into the Holy Scripture 1525-1532," *Doctrinal Treatises*, pp. 1-28.

166) Tyndale,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p. 73.

자들은 이러한 틴들의 정의를 계속 지지했다. 틴들의 견해에 따라 이들은 영국 국교회나 가톨릭의 지배를 거부하였고, 장로들 또는 장로회에 의해 다스려지는 회중교회 체제가 싹트기 시작했다.¹⁶⁷⁾ 이러한 측면에서 틴들은 회중교회 또는 장로회의 맹아를 남겨놓은 성서번역가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틴들은 회중교회에 대한 구상 하에 성서를 번역하였고, 이 교회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성서가 반드시 영어로 번역되고 출판되어 민중들의 의식을 일깨워야만 했다. 이 때문에 성서번역에 대한 그의 열정과 고집이 왕의 이혼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틴들을 예민한 정치 감각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성서번역을 위한 그의 노력은 성서에 기초한 교회를 만들려는 굳은 사명감의 산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교회개혁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지지세력을 얻지 못해 그가 구상했던 개혁이 실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에서 볼 때, 틴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영국 땅에 구현한 인물이었다. 다시 말해, 틴들이 종교개혁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성서번역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성서를 완역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했지만 잉글랜드 내에서 틴들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예컨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지는 틴들의 영향은 그가 죽은 이후 출간된 모국어 성서에 나타난다.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킹 제임스 성서』에 틴들의 번역이 83 퍼센트 가량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¹⁶⁸⁾ 틴들의 다른 저서들도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재출판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1536-7년에 런던에서 다시 인쇄 되었고, 1528년에 출판된 『악한 맘몬의 비유』도 1536년과 1637년에 재출간되었다.

167) 틴들의 회중의 의미를 계승 발전시킨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브라운(Robert Brown)을 꼽을 수 있다. 1592년 브라운은 그의 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를 보여주는 책(A Book which sheweth the Life and Manners of all true christians)』에서 하느님의 권위 아래에서 언약으로 결속된 각각의 회중들은 국가와는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를 회중으로, 프레스비테로스를 장로로 번역한 틴들의 견해를 지지하였고 영국 국교회나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거부하고 장로 또는 장로회에 의해 다스려지는 회중교회의 이론을 세웠다. 그리고 가시적인 회중교회의 모습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Moynahan, *William Tyndale*, p. 105.

168) Daniell, *William Tyndale*, p. 372.

V. 결론

틴들은 '성서번역가'라는 호칭 외에 논쟁가, 선동가, 정치 개혁가, 도덕주의자, 신학자, 역사가, 가톨릭교회의 적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되었다. 틴들에 대해 이처럼 평가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그를 초기 주류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집단 또는 같은 노선 상에 있었던 인물로 설명한다. 이 때문에 그의 독자적인 견해 및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틴들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업적은 성서번역가로서의 모습이지만 그가 처하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틴들은 타고난 언어적 재능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잉글랜드 최초로 성서원문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했다. 그의 성서번역은 성서지식으로부터 동떨어진 민중에 대한 관심과 종교적 사명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사명감에 기초하여 틴들은 촌부조차도 이해하기 쉬운 모국어 번역 성서를 세상에 내 놓았다. 그러나 교계 지도자 및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틴들의 성서번역은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틴스톨에게 성서번역의 후원을 부탁할 당시만 하더라도 틴들이 교회와 고위성직자들에 대해 지니고 있던 반감이 크지 않다. 그렇지만 보름스 판 『신약성서』가 출판된 이후 가톨릭 고위성직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자 그도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틴들은 헨리 8세에게 성서의 가르침에 부합한 군주가 되어 달라고 촉구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에서 그가 국왕에 대한 절대권력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사실상 국왕의 권력을 세속적 영역으로 제한하고 성서에 기초한 통치규범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틴들은 국왕의 이혼이 성서에 근거가 없다며 찬성하지 않았다. 헨리 8세가 성서번역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번역을 계속 진행하였다. 틴들이 헨리 8세와 대립각을 세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왕이 교회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틴들은 회중(교회)이 국왕의 권위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틴들은 국왕으로 대표되는 세속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틴들은 세속권력과의 대립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성서번역과 관련된 입

장과 태도에 있어서도 동시대 주류 개혁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 출발점은 그가 조건적 언약에 기초한 회중교회를 구상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그는 루터의 사상으로부터도 거리를 두었다. 율법의 준수와 그것을 통한 언약의 실현이라는 명제는 틴들의 중심 테제였다. 하느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이를 통해 틴들은 교회의 성서독점을 해제시키고, 교황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그것이 세속권력이든 교회권력이든 간에- 자유로운 회중교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틴들은 성서의 민중화로 만족하였던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교회개혁까지 구상하고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번역 초기, 성서의 민중화를 목적으로 성서를 번역하였던 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번역어의 사용과 비판적 저술활동을 통해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상을 민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기존 성서에서 교회로 번역되어 있던 에클레시아를 회중으로, 프레스뷔테로스를 사제가 아닌 장로로 번역했다는 점은 그가 교회의 계서제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닌 비교적 자유로운 수평적 회집 또는 신앙인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였다. 이를 위해 민중들의 올바른 성서지식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했고, 틴들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국어 성서를 번역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526년 이후, 틴들은 모국어와 인쇄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민중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1525-35년 사이에 틴들이 적극적으로 저술활동을 펼친 이유는 해외도피 중에 잉글랜드 민중들에게 개혁적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바로 모국어 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탄생한 번역성서와 그의 저서들은 영어의 언어적 지위의 상승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엘리트로부터 도시 상공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성서와 다른 틴들의 영역성서를 접한 민중들은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 성직자들과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성직자들의 권위를 뒷받침했던 성서독점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됨으로써 잉글랜드 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세워졌다.

틴들은 독자적으로 개혁노선을 걸었기에 1536년 그가 화형당한 후, 성서 번역과 종교개혁에 미친 그의 자취와 유산도 희미해졌다. 이후 번역성서가 출

간되었으나 틴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새로운 편집자, 또는 번역자들의 이름만 남게 되었다. 또한, 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16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유 때문에 개혁파 중 한 세력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틴들이 견지했던 언약과 율법에 대한 견해는 이후 잉글랜드의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장로회 또는 회중교회와 같은 가시적 개혁교회가 출현할 수 있는 맹아를 남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틴들은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던 주류 개혁가들과 달리 성서번역을 고수하고 순교를 당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정신을 잉글랜드 사회에 구현했던 기념비적 인물이 되었다.

참고문헌

1차 사료

- Barnes, Robert. *Supplication unto Henry VIII*, Antwerp, Simon Cock, 1531.
- Brewer, J. S. and Gardiner, J. eds., *Calendar of Letters and Papers, Foreign and Domestic of the Reign of Henry VIII*, London, 1862.
- Erasmus. O'Donnell, A. M. ed. *Enchiridion Militis christiani: And English Version*, Oxford, 1981.
- Foxe, John. *Actes and Monuments of thes latter and perious dayes*, John Day, London, 1563.
- Foxe, John. *The first volum of the ecclesiasticall history contayynge the actes and monuments*, John Day, London, 1563.
- Foxe, John. Rev. George Townsend, Rev and Stephen Reed Cattley. eds., *The Acts and Monuments V*, London, 1838.
- Foxe, John. John N. King. ed., *Foxes's Book of Martyrs*. Oxford, 2009.
- Tyndale, William, Henry Walter, ed., The Parker Society, *Doctrinal Treatises and Introductions to Different Portions of Holy Scrip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48.
- Tyndale, William, Henry Walter, ed., The Parker Society, *Expositions and Notes on Sundry Portions of Holy Scriptures together with The Practice of Prel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49.
- More, Thomas. *Dialogue Concerning Heresies*, London, William Rastell, 1529.
- More, Thomas. *The apologye of syr Thomas More knight*, London, William Rastell, 1533.
- More, Thomas. *Second Part of Confutation of Tyndals answere*, London, William Rastell, 1533.
- More, Thomas. Marious Richard, Lusardi James and Schoeck Richard eds,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 More*, VI, T.M.C. Lawler, G. ed., New Haven and London, 1973.
- Rastell, John. "An abridgment of the Statutes", E. M. Nugent, ed., quoted in *The Thought and Culture of the English Renaissance: An Anthology of*

Tudor Prose, 1481-1555, Cambridge, 1956.

Stype, John. *Ecclesiastical Memorials. relating chiefly to religion, and reformation of it, and the emergence of the Church of England, under King Henry VIII. King Edward VI. and Queen Mary I: Appendix: Containing Records, Letters, and other Original Writings, Referred to in the Memorials under the King Henry VIII.* Oxford. 1822.

Tyndale, William. Henry Walter, ed., The Parker Society, *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50.

2차자료

1) 단행본

Moynahan, Brian. *William Tyndale: If God Spare My Life*, Abacus, 2002, 김영우 역, 『신의 베스트셀러』, 민음in, 2007.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4.

이동섭, 『영국의 종교개혁』, 수서원, 1990.

Avis, F. C. *England's Use of Antwerp Printers, 1500-1540*, Gutenberg Jahrbuch, 1973.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2006.

Burnet, Golbert.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of England*, Oxford, 1865.

Burton, D. *Thomas Cromwell*, London, 1982.

Cargil, Thomson. W, D, J, Derek Baker, ed., *The Two Regiments: The Continental Setting of William Tyndale's Political Thought, Reform and Reformation: England and the Continent c.1500-c.1750*, Oxford: Basil Blackwell, 1979.

Clebsch, W. A. *England's Earliest Protestants 1520-1535*, New Haven and London, 1964.

- Cottle, Basil. *The Triumph of English, 1350-1400*, London: Blandford, 1969.
- Dickens, A. G. *Thomas Cromwell and the English Reformation*, London, 1959.
- Dickens, A. G. *English Reformation*, London, 1964; 2nd ed. 1989.
- Daniell, David. *William Tyndale, a biography*, New Haven and London, 1994.
- Daniell, David. *The Bible in English: its history and influence*, New Haven and London, 2003.
- Deanesly, M. *the Lollard Bible and other Medieval Biblical Versions*, Cambridge, 1920.
- Demaus, Robert. *William Tindale*. London. 1871.
- Dowling, Maria. *The Gospel and the Court: Reformation under Henry VIII, in the Protestantism and the National Church in Sixteenth Century England*, Croom Helm, 1987.
- Duffy, E. *The Stripping of the Altars*, New Haven and London, 1992.
- Febvre, L. and Martin, H. *The Coming of the Book: The impact of Printing 1480-1900*, Verso, 1976.
- Fuller, Thomas, J. S. Brewer ed., *The Church History of Britain, From the Birth of Jesus Christ Until the Year M.DC.XLVIII* Oxford, 1845.
- Eisenstein, Elizabeth.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change*, Cambridge, 1979.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1980.
- Hakewill, George. *An Apologie or Declaration of the Power and Providence of God in the Government of the World*, London, 1635.
- Herbert, Lord. *History of England under Henry VIII*, London, 1872.
- Hill, Christopher. *The English Bible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volution*, London, 1993.
- Hoyle, R. W. *The Military Survey of Gloucestershire, 1522*, Bristol: Bristol and Gloucestershire Archaeological Society, 1993.
- Latre, Guido. *William Tyndale: Reformer of a Culture, Preserver of a Language, Translator for the Ploughboy*, in Arblaster, Tyndale's Testament, Turnhout: Brepols, 2003.
- Lewis, C. S. *English Literature in the Sixteenth Century Excluding Drama* Oxford, 1954.
- Martin, Joseph. *Religious Radicals in Tudor England*, London, 1989.

- Mcgrath, Alister. *In the Beginning: The 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and How it Changed a Nation, a Language, and a Culture*, New York, 2001.
- McConica, J. K. *English Humanists and Reformation Politics under HenryVIII and Edward VI*. Oxford, 1965.
- Metzger, Bruce M. *the Bible in Translation*, Michigan, 2002,
- Moynahan, Brian. *William Tyndale: If God Spare My Life*, Abacus, 2002.
- Mozley, J. F. *William Tyndale*, London, 1937.
- Morris, Christopher, *Polical Thought in England: Tyndale to Hooker*, London, 1953.
- Newcombe, D. G. *Henry VIII and English Reformation*, London: New York, 1995.
- Paul, Arblaster, Gergely Juhász, Guido Latré. *Tyndale's Testament*, Brepols, 2002.
- Pettegree, Andrew. *Reformation and the Culture of Persuasion*, Cambridge, 2005.
- Rupp, Gordon. *Six makers of English Religion 1500-1700*, London, 1957.
- Ryken, Leland. *The Word of God in English*, Wheaton, 2002.
- Scarisbrik, J. J. *Henry VIII*, Berkeley: Berkeley and Los Angeles, 1968.
- Schuster, L. A. Marius R, Lusardi J, and Schoeck R, eds, *The Complete works of St. Thomas More*, Vol 8, New Haven, 1973.
- Slavin, A. J. *Humanism reform and reformation in England*, New York; Wiley, 1969.
- Steiner, George.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Steinberg, S. H. *Five Hundred Years of Printing*, Pelican books, 1974.
- Sturge, Charles. *Cuthbert Tunstall: Churchman, Scholar, Statesman, Administrator*, London, 1938.
- Warner, Michel. *Publics and Counterpublics*, New York, 2002.
- Weir, D. A. *The Origins of the Federal Theology in Sixteenth-Century Reformaton Thought* Oxford, 1990.

2) 논문

박영배, 「성서번역의 역사와 위클리프 성서」, 語文學論叢 Vol. 18, 국민대어문학 연

구소, 1999.

신길호, 「영역성경의 역사적 고찰」, 영어영문학 제15권 1호, 1995.

원종천, 「16세기 영국 청교도 언약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 역사신학 논총, 1999.

Pardue, Bradley Cameron. "A litle treatyse in prynte and euen in the english tongue": Appeals to the Public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English Reform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2010.

Baumgold, Deborah. "Pacifying Politics: Resistance, Violence, and Accountability in Seventeenth-Century Contract Theory," *Political Theory*, 1993.

Betteridge, Thomas. "William Tyndale and Teligious Debate"; *The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studys*, Duke University Press, 2010.

Collinson, P. "William Tyndale and the Course of the English Reformation"; Vol 1. Oxford, 1996.

Ginsberg, David. "Ploughboys versus Prelates: Tyndale and More and the Politics of Biblical Translation," *Sixteenth Century Journal*, No. 1, 1988.

Greaves, Richard. "John Knox, the Reformation Tradi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sistance Theory,"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1976.

Greaves, Richard. "Concepts of Political Obedience in Late Tutor England: Conflicting Perspectives," *The Journal of British Studies*, 1982.

Hume, A. "A study of the Writings of the English Protestant Exiles, 1525-35," unpub. Ph. 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61.

Headley, John. "Thomas Murner, Thomas More, and the First Expression of More's Ecclesiology," *Studies in the Renaissance*, Vol. 14, 1967.

Jamey, Hecht. "Limitations of Textuality in Thomas More's Confutation Tyndale's Answer,"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6, No. 4, 1995.

Knappen, M. M. "First English Puritan", *Church History*, Vol. 5, No.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6.

Rex, Richard. "The Crisis of Obedience: God's word and Henry's Reformation", *The Historical Journal*, Vol, 39, No, 4, 1996.

Shoenberger, Cynthia Grant. "The Development of the Lutheran Theory of Resistance: 1523-1530," *Sixteenth Century Journal*, 1977.

Abstract

William Tyndale's Bible Translation and Reformation

Sang Sik, Choi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tries to show the independent features of William Tyndale's (1494-1536) reformative activities, which he performed by translating the bible into his mother tongue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when the English authorities prohibited the publication of vernacular bibles. Most works on Tyndale have described him as a person who followed the ways of contemporary mainstream reformers or stood in the same political line. Due to this research tendency, Tyndale's own point of view and stance have not come into view. Tyndale did not stop translating the bible from 1526, when he published vernacular bibles, to 1536, when he continued to criticize Henry VIII and the prelates and was burnt at the stake. During this time, he followed his own line of conduct for the Re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asons why Tyndale was opposed to Henry VIII and the form of the church based on the conditional covenant, which he strongly emphasized.

Tyndale started to translate the bible out of a concern for the

people who were not allowed to access biblical knowledge and out of a religious sense of duty. However, he did not do it simply for the popularization of the bible. After the conflict with the prelates and political community that did not allow the biblical translation, his translation started to take on a political nature. He consistently asserted disobedience to the king who did not follow the biblical teachings, in his *The Obedience of a Christian Man* and *The Practice of Prelates*. Furthermore, he not only restricted the king's authority to the temporal realm, but proposed governance norms. In particular, when the issue of King Henry VIII's divorce came to the fore, he opposed it, stating he could not find any basis for it in the bible. Although the king did not allow him to translate the bible, Tyndale persisted. In this way, Tyndale opposed Henry VIII based on the awareness that kings do not have any absolute authority in the church.

Regarding biblical translation, Tyndale took a different approach that contemporary mainstream reformers had been employing. This began with the idea of the congregational church based on conditional covenant thought. In this sense, he kept his distance from Martin Luther's ideas. What is more, Tyndale's point of view on covenant thought was more similar to Johann Heinrich Bullinger's than Ulrich Zwingli's. The observance of the law and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were some of the main subjects he used to appeal to the English people. In order to fulfill the covenant of God, an understanding of the bible is first required. He thought that this removed the right of the church to monopolize Holy Scripture and eliminated the effect of the pope.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e strongly desired was to establish the congregational church, which would be free from any political or religious authority.

On the basis of this idea, Tyndale tried to reject the traditional notions of the church and enlighten people about the images of the

new church through the use of new translated words and polemical works. It is evident that Tyndale did not acknowledge the authority and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in that he translated “ἐκκλησία” (ecclesia) into “congregation” and “πρεσβύτερος” (presbyteros) into “presbyter,” which had been translated to “church” and “priest,” respectively, in the bible translated before Tyndale’s. The church he pursued was not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but a relatively equal gathering or a free meeting of the faithful. To realize his vision, he had to enable the English people to gain opportunities for right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first. Therefore, Tyndale aimed to distribute the vernacular bible to them, which could be understood as much easier than before. His vernacular bible and polemical writings born through his efforts received a fervent response from contemporary elites to urban business men. First of all, the people who had read Tyndale’s vernacular bible began to conceive of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pope, prelates, and the system of the established church. Due to this phenomenon, the age of monopolizing biblical knowledge came to an end, building a significant foundation for the Protestant Reformation. Although Tyndale could not achieve his aim, as he did not give shape to Reformation plans and assemble supporters, he became a commmorable figure who independently realized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in England by persisting in translating the bible and being burnt at the stake.

keywords : William Tyndale, Bible Translation, English Reformation, English Bible, Law and Covenant, Congregational Church

Student Number : 2009-20058